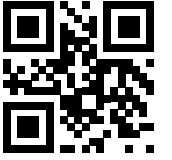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24호 2021년 4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브레인네트워크 세미나에 참석한 동문들과 이 대회를 주최한 미주동창회의 신응남 회장과 실행위원들(왼쪽)

공간·세대 초월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다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첫 비대면 회의 진행... 100여명 참석 성공 개최

세미나 개최사-신응남 회장



2021년 3월,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일상을 위협하는 팬데믹 속이지만, 현대 의학의 눈부신 진전에 희망을 품고 새로이 봄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팬데

믹은 인류역사 속에서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찾아왔고, 그 역경을 이겨내었음을 다시 상기해 본다.

위대한 문명은, 그들의 잉여자본을 과감하게 미래에 투자한다. 그리고 그들의 여력을 키워간다. 이번 BNT 세미나 개최도, 예측 불확실하게 도전해올 외부의 도전으로부터,

우리들의 잠재적 여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도도하게 이어질 미주동창회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미래를 계승해 나갈 후배들에게 오늘 우리의 노력이 유익한 지적 유산으로 남겨지길 바란다.

정체성(Identity)이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을 말한다. 정체성은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 동문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쩌면 보편적 지식인의 비전이기도 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하는, 진리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이나, 특출한 지성인 집단만이 향유할 수 있는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

한 세기 만에 도래한, 인류문명에 담긴 팬데

믹의 역사적 도전에 대한, 문명 보존을 위한 현명한 응전은 과연 무엇인가? 이 거대한 담론에 서울대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미주동창회는 "팬데믹 후 인류미래의 전망"이라는 주제를 갖고, 미주 동서부를 연결하고, 한국까지 연결하여 2021년 BNT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과 한국에서, 다섯 명의 자연 및 사회과학 분야의 젊은 동문 학자들이 강사로 참여 할 것이며, 모더레이터로 각 분야에 세 명의 시니어 동문학자가 참여한다.

현명한 응전을 위하여, 그들이 그동안 쌓아 올린 전문적 지식과 내면화된 깊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연구 발표하는 강연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인류문명의 보

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다각도로 고찰해 봄으로써, 우리 서울대 동문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TS 엘리엇의 황무지 사월을, 한 주 앞두고, 온라인을 통해서 열리는 이 강좌가 바이러스로 황량한 한 해를 겪어낸 동문 여러분께 깊은 공감과 전하는 역사적인 세미나가 되기를 바란다.

수고하고 협조한 지역동창회 회장과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신응남 회장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브레인네트워크 세미나 내용 <2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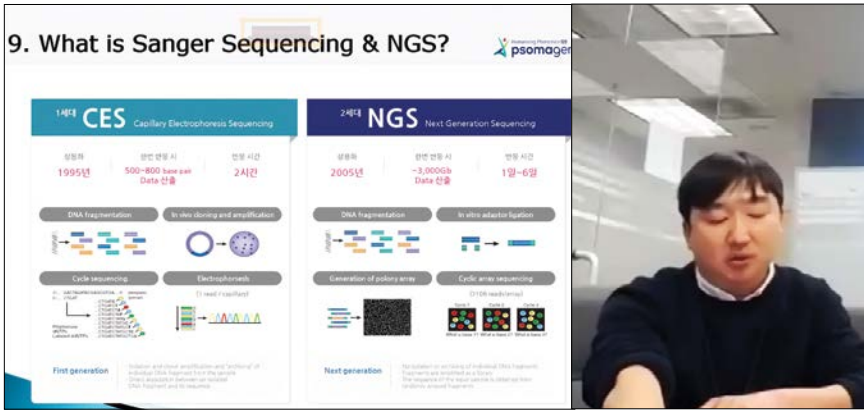
미주동창회 유지·성장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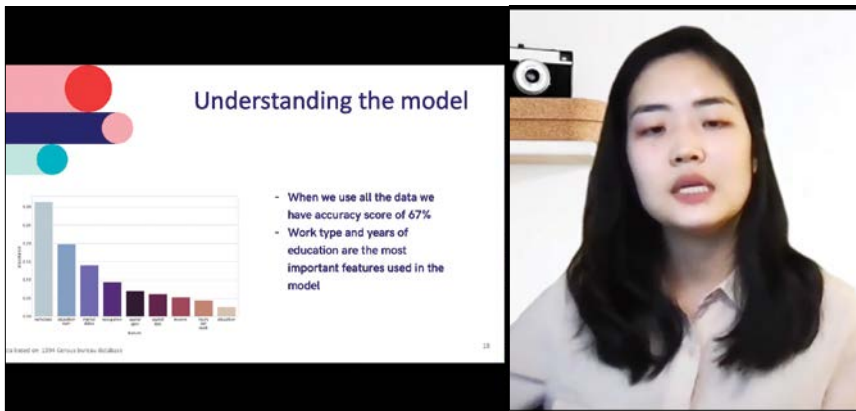
PAYABLE TO SNUAA-USA 아래의 주소로 회비 납부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1부 자연과학 분야의 발표를 맡은 이지원 박사(왼쪽)과 2부 사회과학분야의 발표를 맡은 이효준 박사(오른쪽)가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강의하고 있다.



자연·사회과학 전문가의 ‘코로나’ 시대 분석과 전망

/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 /

지난 3월27일 미주동창회에서는 ‘팬데믹 후 인류미래의 전망’을 주제로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부시각으로 오후 8시에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회의로 열렸으며, 미 동-서부를 넘어 한국까지 100여명이 넘는 동문들이 참석, 성공적인 행사로 기록되었다.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는 미주동창회 주최, 브레인 네트워크, 워싱턴지부 SNU FORUM, 워싱턴 DC지부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하용출 교수와 김재운 박사가, Moderator로는 이노바 연구소 메디컬 디렉터 남명호 박사가 맡았다.

연영재 사무총장의 사회와 신용남 미주동창회장의 개회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신용남 회장은 “젊은 후배가분들을 통해서 서울대학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동창들의 참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1부의 첫 순서로 남명호 박사가 자연과학분야의 강연자 이지원 박사, 박재한 대표, 우정원 박사를 소개했다.

남 박사는 강연을 시작하며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전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와 양상을, 사망률을 설명해 주었다. 남 박사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진자는 126,855,92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사망자는 2,779,155명에 달하고 있다”며 “COVID-19 Antibody Testing을 비롯한 여러 테스트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불분명한 성능으로 환자 및 Healthcare Provider들의 주의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COVID-19에 대한 치료로는 증상이 심한 분들에게는 Dexamethason or Methyl Prednisone을 투여하고 있으며, 또한 Remdesivir IV, Antibody cocktails 그리고 Convalescent Plasma Transfusion을 통해 COVID-19을 치료하고자 시도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구 투여를 통한 치료제 또한 활발히 개발되고 있음을 전했다.

이후 Psomagen의 감독관으로 활동중인 이지원 박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지원 박사는 코비드의 과거, 현재, 미래에 주제로 강연을 주제했다. 이 박사는 “미국에서는 임상 샘플에서 극소량의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증폭시켜 현재 SAS-Cov2의 감염 여부를 볼 수 있는 RT-PCR 테스트(Nucleic acid am-

plication tests/NAATs)와 Antigen Test 그리고 과거의 COVID-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Antibody Test를 FDA 주도하에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미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Genomic Surveillance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한 COVID-19 Molecular Testing이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 발표 순서인 ‘나우젠’ 박재한 대표는 AI를 활용한 코로나-19 환자의 T 세포 면역 반응 분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대표는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전세계 여러 연구기관들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핵심 침투 전략인 스파이크(spike) 단백질과 이에 대응하는 항체 및 백신 개발에 매진해왔다”며 하지만 이해 비해 세포면역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재를 설명하며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히 T 세포에 대한 연구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이에 취약한 스파이크 단백질을 주로 공격하는 항체와 달리, T세포는 바이러스에 내재된 다양한 항원들을 감지함으로써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어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며 “전문화적인 숫자의 T세포 클론들 중에서 특정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최적의 클론을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과 같으나, 몇몇 선구자적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 난제의 해결에 도전함으로써, 혁신적인 코로나-19 면역 진단법 및 차세대 백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제넥신 개발본부장(CDO/COC)로 활동중인 우정원 박사가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는 제넥신의 차세대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우 박사는 “T세포는 항체에 비해서 장기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T 세포 면역 반응이 낮을 수록 코로나-19의 중증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현존하는 코로나-19 백신은 변이 바이러스에 그 효과가 현저히 낮아지는 한계점을 가지나, 제넥신이 개발 중인 백신은 광범위하고 강한 T 세포 면역 반응을 일으킴으로써, 지속적으로 높은 방어능을 유도하고 잠재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제넥신의 백신 GX-19N은 스파이크 단백질 뿐 아니라 NP (Nucleocapsid protein)을

포함한 백신으로서, 광범위하고 강한 효능 뿐 아니라, 높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므로써 최고 수준의 백신을 추구한다”고 설명, GX-19N의 임상 1상 시험에서 안전성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타 백신 대비 현저하게 높은 T 세포 반응을 확인, 현재 건강성인 및 노년층 대상 임상 2a를 활발히 수행 중에 있음을 밝혔다.

1부 자연과학 분야의 강연이 길어짐에 따라 질문과 대답이 생략되었다. 하지만 각 강연자들은 동문들의 질문을 받아 다음 5월호에 동창회보를 통해 대답을 하기로 하였다.

이어 이어진 2부는 하용출 공동준비위원장의 강사 소개로 시작되었다. 2부는 사회과학분야로 Covid-19로 인한 세계 정치 변화와 인종, 소득격차와 Covid-19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소개된 전재성 교수는 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한국에서 강연에 참여했다. 전 교수는 코로나 시대 국제정치의 변화와 한국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코로나 위기가 일개은 국제정치의 새로운 문제는 기존의 지정학, 강대국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넘어선 새로운 보전, 환경 위기라고 보았으며 미국 단국체제 하의 세계화에 대한 반세계화가속 현상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험의 세계화와 세계주의 없는 세계화의 문제점이 부각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미 전략경쟁으로 악화되고 있던 미-중 간 경쟁 구도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경제회복을 둘러싼 국력 경쟁 심화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초기에는 지구적 역할을 강조하겠지만 미국의 경제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여의치 못할 경우 트럼프주의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코로나 사태와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코로나 사태 대처 상황, 남북 간 보건협력의 가능성과 현재 북핵 문제의 딜레마에 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진 발표자인 이효준 박사는 S&P Global 수석 데이터 과학자로 활동중이며 2000학번 출신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 박사는 인종간 정의와 평등에 대한 데이터 연구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역사적으로, 전세계적인 감염증은 인종별로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유색인종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한다”며 “이러한 그룹은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 신체-정신건강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COVID-19도 다르지 않았으며, 유색인종 및 소수 인종 그룹이 이번에도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색인종은 COVID-19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고, 양성 및 사망률은 유색인종 그룹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며 소득과 교육수준은 아시아인을 제외하고 더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소득과 교육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소득과 COVID 데이터는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연이 모두 끝나고 김재훈 공동준비위원장은 “각분야의 전문가들의 높은 수준의 강연을 감명할 수는 없지만 Covid에 대한 현실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며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많은 동문들을 위해 흥미로운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전재성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마지막 말을 전했다.

이명자 워싱턴주 지부 동창회장은 폐회 인사에서 신용남 미주동창회장 및 준비위원장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훌륭한 강사들의 강연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상근 워싱턴 DC 회장 또한 “사회, 인문, 과학 부분을 넘나들며 건문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였다”며 “100명이 넘는 분들이 홍보를 잘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인 것 같다.”고 미주총동창회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 행사를 위해 수고한 지역회장, 참가 동문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4.19혁명, 대한민국 ‘민주화의 초석’이 되다

4.19혁명 61주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419혁명은 그 시대를 겪은 우리 동문들에게도 크나큰 사건이었다. 419 혁명은 산업화와 함께 대한민국 발전 원동력의 하나인 민주화의 초석이 되고, 우리 사회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정신은 헌법적 가치와 이념으로 승화하여 우리의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한 동문들은 물론, 역사속 한장면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후배 동문들도 4월19일 그날의 역사를 기억해 보는 4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419 기사를 준비했다.

<편집자 주>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이승만 정권의 독재체제를 무너뜨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다. 1948년에 들어선 이승만 정권은 1960년

까지 12년간 집권하면서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양민학살 등 온갖 부정과 불법을 자행하며 장기 집권을 획책하였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와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집권당인 자유당은 강압선거, 관권선거, 개표 조작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이런 정치 상황을 전후해 대구에서는 228 학생 의거가 일어났고, 경남 마산에서도 시민들과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4월 11일에는 시위 도중 실종되었던 마산의 고등학생 김주열 군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참혹한 시체로 바다에서 발견되자 이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게 되었다.

4월 19일 서울 시내 각 대학 학생들이 독재 규탄과 민주수호 및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총궐기 선언문을 낭독하고 중앙청을 향해 행진하였으며, 이에 당황한 정부는 서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이에 맞섰다.

4월 25일에는 전국 대학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구속학생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섰고, 이에 자극받은 일반 시민들이 계속해서 시위를 벌인 결과 결국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419는 여러가지 의의

를 가진다.

첫째, 419는 반(反)정부, 반독재, 반부정(不正) 운동이며, ‘혁명’에 속한다. 이승만 정권이라는 절대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싸워 결국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권력 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부른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나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가들이 벌인 활동처럼 권력 교체 없이 단순히 정의를 위하여 의로운 일을 도모하는 ‘의거’와 다르다.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도 419는 ‘419혁명기념일’로 정해져 있다.

둘째, 419는 학생과 시민 즉 민중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다. 이 점에서 516군사정변과 같이 소수 세력인 군인들이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찬탈하는, 지배세력간의 권력 교체인 ‘쿠데타’와 구별된다.

셋째, 419는 비폭력 시민혁명이다. 흔히 세계 3대 시민혁명으로 영국의 명예혁명(1688~1689년), 미국의 독립혁명(1776~1783년), 프랑스 대혁명(1789~1799년)을 꼽는다. 이 중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은 폭

력과 전쟁으로 점철되었으나 419혁명은 폭력과 전쟁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영국의 명예혁명에 버금간다.

넷째, 419는 우리나라 최초의 성공한 혁명이자 미완의 혁명이다. 419에 의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자유에 대한 절제 결여, 정치권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국민 혼란과 갈등 야기 등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지 못한 채 516군사정변에 의한 군사독재 출현에 발미를 주었다는 점에서 미완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419민주이념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 지향적인 가치 기준이다. 419는 우리 국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주권재민, 자유와 평등, 절차적 정의 등 민주주의의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고, 그 이념은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으로 계승되었다. 앞으로도 419민주이념은 국가의 사명과 목표, 권력행사의 정당성, 국민의 삶의 질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본적 가치 기준으로서 계승발전되어야 한다.

<기사/사진 출처 : 시니어메일>

사진으로 보는 4.19



부정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물결이 서울 종로2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데모 저지를 위해 급거 출동하는 무장경찰들(마산)



사살된 여인의 시체를 싣고 분노하는 데모대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의 망명길에 오르고 있다.



민중을 향해 총을 겨누는 경찰.



시위가 끝난 후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이회백 (의대 55)

4.19가 일어난지 61년이 지났다. 4.19에 대한 역사적 사실은 많이 기술되어 있으니 내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내가 겪은 4.19.

1960년 4월 19일 나는 서울의대 졸업반이었고 임상 실습중이었다. 그 전날 4월 18일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대적인 데모를 벌였다. 실습중이던 나는 고려대학이 거리에 나와 싸우는데 서울대는 뭐하는가 하는 수지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자 서울 곳곳에서 데모가 일어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이려고 있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가운을 벗어 던지고 대학병원을 나와 종로로 향했다.

거리는 데모대로 꽉 차 있었다. 종로에서 우로 돌아 광화문 쪽으로 걸어가 종로와 광화문이 마주치는데 도달했다. 거기서 데모대는 왼쪽으로 돌아 국회의사당 으로 향하는 파와 우로 돌아 중앙청으로 향하는 두 파로 갈라졌다. 나는 모든게 이승만 탓이니 그가 있는 경무대(경무대가 청와대로 이름이 바뀐것은 4.19후 유보선 대통령 때)로 가 그와 따지는게 마땅하다고 여기고 이걸을 택했다. 중앙청에서 좌로 돌아가다가 다시 우로 돌아 북쪽으로 향했다. 이때 군중이 잡아 탄 전차가 경무대로 가는 앞장을 섰다. 북으로 향하던 군중은 다시 우로 돌아 경무대 쪽으로 향했다. 나도 거기에 끼여 경무대 정문을 바라보고 가던 중 갑자기 공 북듯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나보다 앞에 가던 사람들이 쓰러졌다.

나는 얼떨떨 해서 우물거리는 찰라 내 바른 쪽 무릎이 따끔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쓰러졌다. 경무대로 향하던 군중들이 뒤로 돌아서 달아나다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두사람이 내 양쪽 팔을 어깨에 메고 민가로 들어갔다. 집주인이 놀란 눈으로 자기집 마당으로 들어오는 나를 쳐다 보자 나는 한눈에 그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다. 신문에서 자주 보던 법무부 장관 李仁 이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택시를 잡아왔다. 그 택시를 타고 대학 병원에 도착했다.

X-ray실에 가 다리 사진을 찍고는 즉시 수술실로 옮겨졌다. 한참 있다가 담담 의사가 와서 "수술은 할 필요가 없으니 병실로 옮기라" 하고는 충알이 관절 사이로 지나가 무릎이 어떻게 될지 관찰해야겠다고 하면서 X-ray를 들고 나갔다.

그러는 동안 내 동기생들은 실습하던 하얀 가운을 그대로 입고 단가를 들고 데모 부상자를 날라오고 이 사진이 크게 신문에 보도되었다. 내가 충상을 당하고 병실에 누워 있다는 소식을 들은 동기생들이 내 방에 몰려왔다.

내가 입원한지 며칠 췌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나 간호원장이 병실을 돌아다니며 "이승만 대통령"이 부상자를 "위문" 하러오니 "

역사적 혁명의 주역 ‘4.19 세대’



준비"라고 말하고 나갔다. 여러사람이 복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잔뜩 할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신 물러나시오!" 그런데 이승만은 나타나지 않고 다시 병동이 조용해졌다. 몇명이나 부상자를 "위로"하고 갔는지는 모르나 내 방에는 들리지 않고 사라졌다.

"이런 죽일놈이!----"하는 욕이 튀어 나왔다. 총부리를 쥐고 있는 군인들을 향해 "우리 형님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마세요!" 하고 국민학교 꼬마들이 울부짖었다.

이승만은 여러날 물러나라는 국민의 요구에 "내가 물러나면 혼란이 오고 그 틈을 타 북한 공산주의자가 쳐들어오니 물러날 수 없다"고 하면서 버티더니 미국대사 John Muccio가 경무대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날 "국민이 원한다면!----"하는 말을 남기고 미군 군용기를 타고 하와이로 향했다. 그가 지나가는 길가에 줄을 섰던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내 병실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이 오고 갔다. 서울대 교황교수로 와 있던 Glenn D. Paige도 그중의 하나였다.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승만 박사 말고 누가 있소. 뭐니뭐니 해도 이승만 박사 밖에는" 하고 열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4.19 보상금인가 뭐가 하는것도 왔다. 나는 전부 사상계에 기부했다. 대학교 학생 "지도자" 중에는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 그리고 시민은 제 자리로 돌아갔다. 심지어 거리 청소까지 맡김히 하고는.

■당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4.19세대
4.19는 전국민이 참가해서 이룬 혁명이다.

코흘리는 국민학교 학생으로 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참가했다. 그러나 그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층은 대학교 학생이었다. 이때 "기성세대"는 물러가라고 외친게 대학생이었다. 금년이 4.19가 일어난지 61년이 되니 지금 80세를 넘어 85세를 바라보는 층이 4.19 세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보다 젊은 세대는 4.19에 주역을 하기에는 너무 어렸고 더 나아가 많았던 세대는 그야말로 "기성세대"로 지탄받는 세대. 살아남기 위해 현실에 타협하고 살던 사람들이 중요역할 할 처지가 못되었다. 사회 중요인물들 다수가 친일파 민족 반역자였다.

대학생 중에서도 고등교육을 거의 마쳤으나 아직 생활전선에 들어가지 않은 상급반 학생이 4.19의 주축이 된것은 이 때문이다.

■내가 살아온 세상

1945년 나는 8-29가 날아다니는 서울을 피해 김포 시골 친척집에서 10리 떨어진 학교에 걸어 다니며 공부하고 있었다. 일제 시대라 모든 교과서는 물론 선생도 일본말로만 가르쳤다. 내 이름도 이회백이 아닌 아리마 가이하꾸였다. 또 나는 내가 일본사람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8월 15일 학교를 마치고 묵고 있던 친척집에 와서 일본이 항복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니 막강한 일본이 지다니 말이 되느냐"고 믿지 않았다. 매일 일본이 승리한다는 뉴스만 듣던 나는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다시 "안전한" 서울로 돌아왔다. 일본말만 하라는 세상에서 일본말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세상으로 바뀌었다. 나는 이 변화에 충실히 복종했다. 한글을 배우고 한국말만 했으며 이름도 이회백으로 다시 바꿨다.

1947년이 되자 중학교 입학 시험을 보게 되었다. 만원 전차에 매달려서 간신히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할수 있었다. 나는 그때 학질을 앓고 있어 하루 걸려 나타나는 열이 마침 그날이라 떨면서 시험을 쳤다.

1950년 5년제 중학교가 중 고등학교로 분리되면서 나는 고등학교 일년생이 되었다. 그리고 밴드부에 들어 크라리넷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자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인민군의 탱크가 마포 강변에 나타나 내 나이밖에 안되보 이는 어린 인민군 탱크병도 구경했다. 며칠후 마포 형무소에서 죄수가 석방 돼 좋다고 날뛰는 장면에 내 기억에 남아있다. 학교가 문을 닫아서 놀다가 하루는 심심해서 학교에 갔다. 강당에서 인민군 모집 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나를 꼬마라고 여겼는지 내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자 인천상륙 작전이 성공 밤에 흑인미군이 겁을 먹은듯한 표정으로 지나가는 것을 창문사이로 관찰했다. 9.28 수복이 되자 다시 학교를 기웃 거렸다. 강당에 날카롭게 생긴 자가 "사상 검증"을 하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다. "너 공산 치하때 뭐 했어?". "저는 밴드부...."

"어, 너 김일성 노래 배웠겠군 한번 불러봐!" 하고 옥박을 지르더니 꼬마 가지고 노는게 싱거웠는지 "가!" 하기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다시 1.4후퇴로 인해 우리집도 남쪽으로 향했는데 돌로 갈라져 내려오다가 할머니, 어머니, 막내 두 동생이 행방불명이 되었다. 실신한 아버지를 대신해 장사로 거진 4년동안 학교를 쉬었다가 다시 공부 시작한지 1년반만에 고등학교를 수료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4.19세대가 다 나와 같은 세상을 살았다고는 물론 말할수 없다. 그러나 이런 공통분모를 가지고 자랐다고는 말할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1) 일제 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녀 일본 교육을 받고 자랐다.
2) 해방후 한국인으로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
3) 한국전쟁이 일어날때 까지 혼란기를 거쳤다.
4) 한국전쟁중에는 이북 공산주의와 이남 민주주의의 틈에서 고초를 겪었다.
5) 한국전이 휴전상태로 장기간 계속되면서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부정부패와 인권탄압을 보면서 자랐다.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세상의 부조리를 목격하고 자란 4.19 세대는 보다 나은, 그리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자라 생활전선에 들어가 현실과 타협하는 현실주의자가 되기전에 이상주의자로 남아 있을때 4.19가 터져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연히" 4.19의 기수노릇을 하게 된게 아닌가 생각해 본다.

종신이사추대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골드

이용락
(공대 48)

이용락 동문은 공대출신으로 1957년 British Council Scholarship으로 Royal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Glasgow, Scotland)대학원을 입학, Power Engineering Postgraduate Diploma 취득했으며 미 국무성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1964년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대학원 입학, 박사학위 취득했다. Borg-Warner 연구소에 근무하였으며 1972년 시카고 KSEA 중서부 지부를 결성 참여했다.

한국의 산업발전에 좀더 도움이 되고자 Borg-Warner 연구소를 조기 은퇴하고 Heat Transfer Research & Development, Ltd. (HTRD)라는 사설 연구개발회사를 창설하였다. 수상경력으로는 1985 년 과학의 날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받았으며2009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에서 최고상인 Outstang Contribution to KSEA Award 수상했다. 서울대학교로 부터 두차례에 걸쳐 공로상을 받았다. 이 동문은 6대 서울대 미주동창회장을 역임했다.

김용건 (문리 48)

조지아

- 부부종신이사 -

배규영 (사대 68) | 오명순 (가정 69)

하트랜드

김영우 (공대 55) | 신성식 (공대 56)

필라델피아

김한중
(의대 56)

서울의대 56학번 김한중 동문은 1964년 미국으로 왔으며 1970년까지 Downstate-Kings County Medical Center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수련했다. 이후 3년간 미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 후 중령으로 제대하였으며 2012년까지 뉴저지 Morristown 에 있는 Morristown Medical Center에서 근무했다. 이후 현재까지 의료계 봉사활동으로 은퇴후에도 의미 있는 일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의민
(공대 68)

1972년에 공대 기계과를 졸업하고 ROTC 10기로 훈련을 마친 후 국방부 조병창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중위로 제대했다. 대우실업을 거쳐 1975년 7월에 도미하여 NJ주의 New Brunswick 에 있는 Rutgers University에서 Mechanical Engineering로 학업을 계속하였다. 1977년에 석사학위를, 1979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뒤, 곧바로 Massachusetts주의 Lexington에 위치한 MIT부설 Lincoln Laboratory에 입사하여Technical staff 로 2019년 3월 31일 은퇴할 때까지 40년 동안 공학연구의 한 길만을 고집하였다. 많은 인공위성들의 mechanical engineering 과 heat transfer에 관련된 부분에 직접 참여하였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위성들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에 기여했다.

지금도 part time으로 일주일에 이틀정도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산보와 운동, 여행, 그리고 classical music과 영화 감상으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취미생활로는 수영과 jigsaw puzzle 맞추기, LEGO및 Minecraft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김기형
(상대 75)

김기형 동문은 상대 75학번으로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Master of Science in Accounting을 졸업했으며 졸업 후 곧바로 CPA에 합격했다. 1983년부터 99년까지 Deloitte에서 수석 관리자로 재직했으며, Coopers & Lybrand에서 매니저로 근무했다. 이후 99년까지 MetLife에서 재직하며 MetLife Korea 파견근무 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A & B Foundation Incorporated (Non-profit), Any Mik Corporation, ATK Homes, Jennifer Kim (spouse)와 발달장애인 홈 설립 운영 (현재 6 locations), 중증 흡을 설립중이다. 아내 이인아 (Master in Special Ed)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첫째는 피아니스트, 둘째는 Maryland 대학 통계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태진
(의대 58)

1964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비행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1967년 도미, 7년간 일반외과와 암외과 수련을 거쳐 외과 전문의로서 뉴욕 근교 Rockland County에서 약 30년간 외과를 개업했다. 은퇴 할 때까지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의사의 사명임을 늘 생각하면서 바쁜 의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미국서 태어난 1남 3녀의 자녀와 5명의 손자 손녀를 두었다. 넷 모두 하버드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인 저희에게 효도하며 각자가 열심히 잘 살고 있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있다.

은퇴한 후 인도 성지순례와 안나푸르나, 네팔, 티베트 임시 정부가 있는 다람살라에 특별 초청으로 달라이라마 존자를

를 친견 할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요즈음은 코로나 사태로 집에서 적당한 운동하며 경전을 읽고 참선수행을 하면서 곧 평상시 처럼 즐기는 골프를 친구들과 함께 칠 수 있기를 고대하며 올해는 좀 더 잘 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공순옥
(간호 66)

공순옥 동문은 Univ. of Maryland 대학 교수이자 Consulting COO for Out patient Mental Health Clinic , 하워드 카운티 한인 시니어센터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Commissioner on Aging of Howard Co. Lorian Health Service Center 한인 앙로원대표이자 Howard county General Hospital board of Trustee, 성균관임성 대학원, 충남대학 간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교수로서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한인 community를 위하여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한국 대학과 기관에 미국의 시스템 소개 하며, 미국의 모델을 통하여 한국 Health Care System에 관한 자문을 하고 있다. 현재 Lorian Health Service Center에 한인 중산계층을 위한 공동 주거 시설을 추진하면서 미 주류 사회에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고 한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2019년 Mayer Handelman Award를 수상했다.



고인의 뜻 받들어 전한 후배사랑

고 한경수 동문 미망인, 미주동창회에 장학금 기부

약 일년 전인, 2020년 2 월 13 일 고인이 된, 한경수(문리 57·사진 오른쪽) 뉴욕지부 동문의 부인께서 연락을 주셨다. 남편 장례때 미주 동창회가 임원인 고인을 위하여 조화를 보내고, 동창 회보에 (2020 년 3월)부고 내보내며 극진히 예의를 표시해 주었는데, 그동안 경황이 없어 제대로 인사를 차리지 못했다며, 가까운 시일에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메세지였다.



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학기마다 학비 조달을 위해, 입주과외를 하며 공부지도 등을 통해 고생하며 애쓰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생전

3 월 1일 11시에 약속을 하고, 동창회 사무실에서 미세스 한(세실리아 한)을 만났다. 시간이 일년 정도 흘렀으니, 이제는 슬픔이 좀 가시었나? 라는 첫 인사에, 미세스 한의 답변은 의외로, "시간이 흘렀어도 그리움은 남아있고, 세상의 바람에 큰 바람막이 같았던 남편이 옆에 있지 않음을 지금도 문득 문득 느끼게 되고, 그 허전함이 여전하다"는 답변이었다.

한 동문이 학창시절 대학에서 공부할 때, 경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을 방문한 미망인 세실리아 한(오른쪽)

Covid-19으로 모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액수 \$2,000을 체크로 준비해 왔다. 마침, 미주 동창회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후배 동문이 있는 상황의 설명을 듣고는, 특별히 그 후배 동문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했다.

최근들어, 고인이 된 동문의 미망인들이 평소 고인이 사랑하던 모교 및 동창회를 위해

가신 동문, 고인의 이름으로 종신이사 등록 및 장학금 기증등 여러 모양으로 기부에 동참하며 서울대 동문 가족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긴긴 겨울 지나 봄 소식도 들려오는데, 미주 동창회에 보람을 실어주는 이런 훈훈한 소식들로 인해 동문 모두 활력을 더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뉴잉글랜드 동창회 포럼

전의진 박사 ‘4차 혁명 사회’ 강연

지난 3월18일 (목) 오후 7시 (EST),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회장 김경선, 문리66)와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 뉴잉글랜드 지부 (회장 노동완 공대 84)가 공동 주최하는 제 10회 뉴잉글랜드 포럼이 열렸다.

전의진 박사 (공대 65)가 ‘4차 산업혁명 사회’라는 제목으로 50분 발표 후에 질의 문답시간을 가졌다. 40여년간 연구소와 정부에서 연구 개발정책 현장을 지켜 온 전문가로서, 최근과 같은 전환기 시대에 기술 사회변화, 교육환경 변화, 연구개발 전략, 새로운 직업, 미래사회 등에 대한 그의 Know-How, 경험과 소견을 펼쳐 보였다.

전의진 박사는 현재 과학기술한림원, 공학한림원 종신회원으로 봉직하고 있다. 서울공대 학사학위, 독일 하노버대학 공학박사를 수여받은 후, 한국기계연구원 분원장, 과학기술부 정책실장, 과학문화재단 이사장, 인천정보산업진흥원장 등에서 4차 산업관련 사업에 참여했다. 최근 인천 로봇랜드 대표,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을 지내고 LG 연구원 고문, TORAY 고문, KIST 감사, 충남대와 명지대 교수, Ecuador 정부 과학정책자문관을 역임했다.

전 박사의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

제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오늘의 기술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기업들이 몇 년 사이에 도태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단시간 안에 성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전자자동차의 확산, 자율주행차량은 자동차의 공유 개념을 불러오면서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자동차 연관 업체들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 로봇은 인공지능의 발달에 힘입어 육체 노동뿐 아니라 지식노동도 대신할 것이다. 국방기술은 무인화에 집중하고 있다. 앞

으로의 전쟁은 과거와 크게 달라 질 것이다. 스마트시티의 등장은 우리 생활을 크게 바꿀 것이다. 현재 직업의 47%가 15년안에 없어진다는 말이 점점 현실감 있게 다가 온다. 대학은 교과 과정은 물론 교육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부자들을 탄생시킬 것이다.

선진국들은 특색 있는 혁신 성장 정책들로 닥쳐 온 산업 혁명에 대처하고 있다. 최고속 통신인프라,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 Data),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AI), 로봇공학, 센서융합, 무인운송수단, 가상현실, 바이오-나노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며, 새로운 초연결 산업사회로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주요 생산 기술에서 우리나라와 격차를 1년 정도 차이로 추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 전문가들은 몇 년치 연봉을 미리 받고 중국으로 직장을 옮기고 있다. 중국의 혁신 성장의 요체는 과학기술자 우대와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 연구결과를 과감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비대면 ZOOM 포럼으로 운영되기에 미국, 한국에 있는 동문들이 지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의 교육

SNU포럼 강성권 박사 초청 강연

시애틀 SNU Forum 3월 세미나가 지난 13일 (토)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기업 IBM중앙연구소 T.J. Watson Research Center에서 34년을 근무한 강성권 박사(사진)가 강사로 초청되었고,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앞으로 유래없는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를 살게 될 우리의 자녀들과 차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 박사는 동부의 명문 University of Pennsylvania를 졸업후 Industry 연구소와 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1984년에 IBM에 입사한 후에 마이크로 전자 상호 연결 기술, 친환경 전자재료 기술 분야에서 150여편의 기술 논문과 150개의 발명특허 등록이라는 괄목할만한 연구업적을 성취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늘날 한층 가속되는 과학기술 혁명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과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상황속에서 야기된 교육문제는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더우기 인간의 지능이 컴퓨터의 지능에 의하여 도전 받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 2세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인간의 세 가지 기본 능력,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 감성지수 Emotional Quotient (EQ), 적응지수 Adaptability Quotient (AQ), 즉 3대 지수 (3Q)와 그 개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강 박사는 "특히, 이번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깨우쳐 주었는데, 21세기를 사는 어린이에게 과학적(비판적) 사고방식 (scientific/critical thinking)을 가르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창의적인 질문 (creative questioning)의 습관을 터득하게 하여, 3Q의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는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질문과 토론을 중시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방식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속에 자라는 차세대 어린이에게 변화에 적응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자신감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3Q 교육에 대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알립니다”

15대 동창회에서는 임기중 발간된 회보를 묶어 오는 6월 기념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필진 및 동문들 중 원하시는 분은 동창회로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우송료가 있습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a.org

SNUAA-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30차 평의원회의 남가주 개최

S N U A L U M N I A S S O C I A T I O N U S A

2021년 6월25(금)~27(일)

테메쿨라 와이너리 골프 리조트 (Temecula Winery and Golf Resort)

2021년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및 회장 이·취임식에 미주 각지부의 평의원님 및 동문님들을 테메쿨라 와이너리 골프 리조트 (Temecula Winery and Golf Resort)로 초대합니다.

테메쿨라는 남가주의 새로운 포도농장 지대로서 약 50개의 대규모 와이너리들이 아름다운 경관속에서 어워드 워닝 포도주를 생산하는 전원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남쪽 80마일 지점에 있으며 와이너리와 함께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입니다.

인근에는 유명한 페차가 카지노 리조트도 있어 남가주 주민들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러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6월25일 부터 27일까지 서울대 미주 각지부 평의원님들과 임원,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2021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은 골프리조트(테메쿨라)의 호텔에서 하게되며 와이너리에서의 전야제, 골프 리조트에서의 세미나와 회의, 인근 명소 관광 및 골프 라운딩으로 2박 3일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괄적인 일정은 6월25일 금요일 숙소 체크인 및 전야제, 26일 토요일 평의원회의 및 관광 투어, 27일 일요일 골프 라운딩 및 관광투어 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정보는 코로나상황의 유동성과 함께 업데이트 해드릴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세가 급속히 꺾이면서 6월까지의 미국내 대부분 일상생활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에 맞추어 남가주의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단, 임원진, 동문들은 평의원회의의 위생적인 진행과 참석자들의 만족스런 투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에 많이 참석하시어서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단합과 도약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남가주의 아름다운 휴양지 테메쿨라 와이너리 골프 리조트에서의 일정을 통해 코로나로 단절된 심신에 휴식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며 많은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

제 15대 회장 신응남 (646-523-9606)
사 무 총 장 연영재 (201-233-7108)
총 무 국 장 문현호 (646-770-7028)

제 16대 회장 노명호 (626-991-4457)
사 무 총 장 강호석 (714-260-5483)
총 무 국 장 박동천 (424-301-0100)





“오랫동안 그리웠다. 보고싶었다”

남가주 바둑동호회 1년만에 만남

2021 3-2 남가주 총동창회 바둑동우회(회장 김기형 상대 75)분들의 모임이 작가의집(김병연대표)에서 오후 3시30분에 만나 바둑과 저녁으로 담소를 나누었다. 얼마나 기다렸던 만남인가?

1년을 카톡으로만 전하다가 드디어 동우회 전원 백신 1차 2차를 맞고 3주 지나서 조금은 안심한 가운데 정이 그리워 만남자리가 어찌나 친진스러운 얼굴인지 동심으로 돌아온 느낌이 마냥 새롭기만하다.

바둑동우회 현재 동문들은 김기형 바둑동우회 회장, 김병연 상임이사, 서치원 상임이

사, 신영찬 동문, 최진석 법대회장, 이명일 여대회장 이었다.

김기형(상대 75) 바둑 동호회장은 “오랫동안 모임을 갖지 못했지만 백신 맞고, 모처럼 바둑동호회원들, 사모들이 작가의 집에서 치열한 접전과 입담으로 즐거운 만남을 가졌다. 왜리 모두 사랑스러운지... 자. 우리 모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며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자. 브라보!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바둑동호회 천천세! Korea Town in LA 만만세! 배달의 민족”

<백옥자 조직국장>

“골프로 건강도 친목 동시에”

남가주 ‘말수회’ 16명 참석

지난 10월 부터 남가주 총동창회 초기 회장단 8명이 매주 수요일에 Santa Anita GC에서 Golf 모임을 가져 왔다. 지난 2월 24일 말수회는 동문 16명이 4조로 나누어 아침10시부터 Santa Anita GC에서 Golf를 즐기고, 마친 후에는 Pasadena에 위치한 한국식당 Patio에서 회식하면서 친목을 다졌다.

20여 동문을 예약하였으나 Vaccine 접종 관제로 몇 분이 불참하였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말수회' 모임을 가지며, 이제 Golf하기 좋은 철이 돌아와 매주 수

요일에도 Golf모임을 하고 있다.

민일기, 노명호, 제영혜, 김병연, 김상찬, 한효동, 김정빈, 신영찬, 임춘택, 지인수, 한정현 동문과 박정모 부부는 특별히 회비와 Donation으로 모임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말수회는 Golf를 통해서 건강도 유지하고 동문들 간에 친목도 다지며 특히 전에 총동창회를 위해서 기초도 닦고 발전에 헌신하셨던 원로 선배님들을 후배들이 도와 드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사: 한효동(말수회 회장)>



꽃이에 헌신하고 여러번 꽃꽃이 전시회를 도와 주었다. 원래 붓 글씨를 잘 썼는데 집에 서예 선생님을 모시고 서예공부도 하였다. 4명의 자녀와 8명의 손자 손녀를 두었는데 자녀들을 참 잘 길렀다.

큰 딸 Ellie와 둘째 딸 Mimi는 둘 다 Harvard 대학을 졸업하였다. 내가 영국용 동문을 만난 것은 1954년 예과 입학년 때였다.

그 때부터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서울대와 Philadelphia에서 함께 지낸 친구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 명성과 장로로서 헌신과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고 가장 행복하고 값지게 인생을 산 자랑스러운 친구다. 2020년 12월 2일 86세의 나이로 먼저 하늘 나라로 갔는데 나도 불원간 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필라델피아 지부에서 준비한 서울대학교 조기와 고 영국용 동문(작은사진)

/ 추모사 /

멀리 떠난 벗을 기리며

나의 벗 영국용 동문은 서울 의대 1960년 졸업생이다. 그는 졸업 후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제대후 1965년에 도미하였다.

그는1966년에 Philadelphia의 명성이 있는 Lankenau병원에서 일반외과 resident를 마치고 곧 이어 Lankenau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서 1966-2001년까지 35년 동안을 일했다. 외과를 은퇴하면서 Lankenau병원에 새로 wound care clinic을 신설하여 그 후 10여년을 일 하다가 2015년에 은퇴하였다. 한 곳의 병원에서 거의 50년을 외과 의사로 일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임과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외과 의사였는지 알 수 있다.

그는 1968년에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의 창립 멤버로 수고 하였고 2015년에 Ft. Lee, NJ로 이사 갈때 까지 47년간을 한 교회에



전희근 (의대 54)

가 넘는다.

선교지에 가기 위해 60세가 지난 나이에 처음으로 Saxophone을 배우고 선교지뿐 아니라 양로원에도 정기적으로 가서 찬양하며 봉사하였다.

그는 지극히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본래는 운동을 좋아하고 태권도도 잘 하였는데 아내를 위하여 아내가 하는 Ikebana 꽃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장동만 (문리 55)



뉴욕에 거주하는 장동만 동문이 85세로 소천했다. 전 동아일보 기자로 활동했으며 미주동창회 논설위원이었던 장 동문은 '조국이며 하늘이며', '고뇌하는 젊은이여' 등의 저서를 남겼으며 삶의 연장선상에서 죽음을 관망한 책 '살아가며, 죽어가며'를 미주동창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유가족으로는 미망인 고애자 권사 등이 있다.



(고) 고일석 (보건대학원 69)

고 고일석 동문이 82세로 소천했다. 한의사로서 로드 아일랜드의 한방 및 침술 크리닉을 경영하면서, 주정부 보건 의료 분야에 적극 참여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최근에 서울대학교 총장상을 수상했다. 오랫동안 서울대학교 뉴잉글랜드 동창회 이사로서 봉사하고, 또한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고문 및 종신이사직을 역임했다. 미주한인학교협의회 이사, 로드아일랜드주 한인회 회장을 역임했다.

*미주동창회의 논설위원, 그리고 종신이사이신 고인 두 동문에게는 미주동창회에서 장례식에 조화를 보내어 심심한 애도를 표했습니다.



/ 미국시인 소개 /

Maria Mazziotti Gillan

My Mother's Mulberry Trees

In her garden, my mother planted a mulberry tree.

She'd let it grow for eight years, its bark smooth

to the touch, then she'd chop it down and start again.

In between, it provided shade for her tiny walk and patio.

In the rest of her garden she planted tomatoes, peppers,

basil, oregano, rosemary, cucumber lettuce, string beans,

corn and a line of sunflowers that raised their faces

to the cauldron of the sun. My mother never stopped working. My mother was so full of

energy, it was as though she were attached to high-voltage wire. My mother

recreated the farm she left behind when she was a girl on that mountain in Italy,

the plants startlingly green and alive.

In the three months it took her to die, Jennifer, my daughter,

and I picked tomatoes, peppers, corn, and zucchini

and carried the baskets into her bedroom so she could see them. Jennifer and I could

barely keep up with the harvest,

as though the garden wanted to give her one last crop, enormous and perfect,

so that she could place the basil and mint and tomatoes to her nose and draw the fragrance in.

Translated into Korean by Christina Shin

What did I know about love?

I was twelve. What did I know about love, about how I would love the boy who lived next door for being gentle and kind, for the way he always acted as if I were breakable and precious, someone to be guarded and cared for, though his father was a drunk who beat him up and his mother was skinny, a cigarette always dangling from the corner of her mouth.

Where did he learn such tenderness, what un-smashed corner of himself carried this sweetness? I think of him sometimes, the first boy I ever loved, the one who would be the model of every man I ever fell for, with his golden hair, wide blue eyes, clear skin, long delicate fingers of his hands, think and remember how we'd walk home together

from PS 18 down the cracked and broken sidewalks of 19th Street. One night, his family moved out. One step ahead of the bill collectors, the neighbors said, I did not see him again, but I remember the way he'd stop a minute at my house to watch me head toward our back stoop and then he'd turn, face his own house and hesitate, gathering himself to go inside.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She is a combination poet, writer of fiction & critical essays, educator, and editor of extraordinary proportions. In addition to her own forte, forte original poetry, she is an organizer of creative—poetry & art—events and huge annual anthologies and creative writing programs, simultaneously, at two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ituated at a significant distance from each other. That she can manage the weekly trips, would test the energy of a Charles Atlas. But, unlike many poets who see only themselves in the mirror of their egos, she looks through the crystal window to be of help to poets of all levels of ethnicities and accomplishments. With a heart that, if not

as big as a planet, is at least as big as a continent, she is considered to be “the Great Poetry Mother,” looking out for the all who are touched by the desire to turn life experience into poetry.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Maria Mazziotti Gillan is the author of twenty-four books. Her latest poetry collection is When the Stars Were Still Visible(2021). She received the American Book Award for the collection All That Lies Between Us. She is the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the Poetry Center at Passaic County Community College in Paterson, New Jersey. She is an editor of the Paterson Literary Review and professor Emerita of English and creative writing at Binghamton University-SUNY.

내 어머니의 오디나무

그녀의 가든에, 나의 어머니는 오디나무를 심었다.

그녀는 그 나무를 8년 자라게 두었고

그 껍질이 만질 때 매끄럽게 되면, 그녀는 그것을 쳐내리고 곧 다시 심곤했다.

그 사이, 나무는 그녀의 좁은 출입구와 파티오에 그늘을 드리웠다.

정원의 나머지에는 그녀는 토마토, 고추, 바질, 오레가노, 로즈마리, 오이, 상추, 콩,

옥수수 그리고 뜨거운 태양 향해 얼굴을 곧추 세운 해바라기를 한 줄 심었다.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 어머니는 늘 에너지로 충만했다, 마치도 높은 전류에 꼽힌 것처럼.

그녀는 그녀가 어릴 적 떠나는 이태리 산골의 농가를 재현했고,

농작물들은 놀랍도록 푸르고 싱싱했다.

그녀가 죽어가는 세 달 동안, 딸 제니퍼와 나는 토마토, 고추, 옥수수, 호박을 판바스켓을

그녀가 볼 수 있게 그녀의 침실로 가져갔다.

제니퍼와 나는 그해 풍작의 결실을 겨우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마치도 정원은 그녀에게 마지막 풍요롭고 완전한 농작물을 내어주고 싶은 듯,

그래서 그녀가 바질, 민트 그리고 토마토를 잇달아 심어 그 향기를 깊게 들이마실 수 있도록.



조달훈(사대 66)

/ 전문 칼럼 /

수학: 그 난해한 세계

Corona 19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연히 Corona 18 이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의 한국식 나이인 2019의 19였고 변종이 나와도 Corona 20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두개의 19는 뜻 또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하나는 단순한 기호로서 다른 하나는 순서를 나타내는 순서수로 쓰인 것입니다. 조기교육을 하는 상당수의 엄마들은 아마도 숫자세기를 먼저 가르칠 것이고 우리 대부분의 죽음은 하나의 통계수치를 남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는 1등이나 아니냐와 돈 그중에서도 큰돈만 억 ₩1,0000 ₩1,0000,0000원 등에 매어 살고 공부를 많이해서 논문을 쓰려면 수학적 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배웠던 수학 이상 무엇이 있을 까를 의심해 보지는 않지요. 다만 수학이 많이 쓰인다는 것과 어렵다는 정도로 알고 있고 사실은 더이상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혹 수학이 무엇인지 꼭꼭해 알고 싶으신 분은 옆에 있는 QR Code를 이용해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을 바로 Wikipadia의 수학 사이트로 안내할 것이고 그곳의 여러 링크를 따라 가보면 수학의 세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사이트에 수학의 주요 분야 41가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저는 김삿갓처럼 여기저기 구경하다 말았고 위의 어느 특정분야라고 할 수 도 없이 나름대로 이해한 몇가지를 쉽게 적어보려 합니다.

1. 수 (Numbers)

“오늘은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기쁘게 축하해야 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간단히 말해 1 + 1 = 1 이 되는 날>” 이 말 씀은 모든 결혼식장에서 흔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들은 모두 다른 하나인 것이 겠지요.

얼마 전 수학 매니아인 제가 한국의 수학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다음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 1+1=0 (¬) 1+1=1 (¬) 1+1=2 (≡) 1+1=3 (¬) 1+1=10. 이 문제에 대하여 올린 많은 댓글 중에 가장 맛있는 답(?)은 “하나도 고를 수가 없음”이었습니다. 이유는 남자 여자가 만나면 귀요미가 나와 셋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 때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산수학 Discrete Math이 들어가 있어서 댓글이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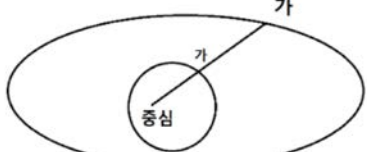
올라왔었습니다.

수(數·Number)를 많이 쓰고 있지만 수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어렵고 예시하기는 쉽지요. 가령 둘이라는 수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두분, 해와 달 두별, 나와 너 둘, 내눈 두개, 큰 것과 작은 것 둘, 밤과 낮 둘? ... 둘이란 수는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2, Ⅱ, 二, 貳, ... 수는 갯수를 셀때 씁니다. 그리고 수를 나타내는 많은 문자 또는 기호들이 있지요. 두 손의 손가락 갯수가 서로 같다는 사실은 두손을 마주하고 손가락들을 서로 맞추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다섯까지의 숫자 하나 둘 셋 ... 들을 배운 후 손가락 수를 세어보고 '아 모두 다섯개씩이니까 같구나' 라고 이해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갯수를 셀때 쓰는 수 0, 1, 2, 3, ... 들을 자연수라고 하고, 이들은 짝수와 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수 0, 1, 2, 3, ... 전체의 갯수와 짝수 0, 2, 4, 6, ... 전체의 갯수는 똑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서로 짝지울 수 있기 때문이죠. 0-0, 1-2, 2-4, 3-6, 4-8, 5-10 ... 등등.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작은 원과 큰 원은 같은 수의 점들을 갖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타원들의 점 '가'와 작은 원의 점 '가'를 맞추어보면 두 도형의 점들이 모두 1대1로 맞추어 지고 서로 같은 수의 점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갯수'를 말할 때, 자연수 전체를 편의상 알파 a개, 원에 있는 모든 점들의 갯수를 또 편의상 베타 b개라고 하면 두 수 알파와 베타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 개념을 처음 제대로 연구 정리한 사람은 19세기 말 독일의 Georg Cantor 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현대 수학을 정립 발전시키는 아주아주 큰 업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수와 음수 분수등 수많은 수들을 수천년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수들간의 연산 + - × ÷은 많이 사용해 왔지만 수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기하학에 비해 아주 많이 늦었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 많지 않은 소수의 정의 (Definition)들과 공리(Axiom)들로부터 시작해서 도형의 성질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가는 전통적 기하학은 기원전 3세기부터 시작했지만 대수학(代數學 · Modern Algebra)은 2천여년이 지난 후 18세기 후반에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작은 원과 큰 타원의 점들은 1대1로 맞설 수 있음

2. 대수학 (Algebra)

세계의 수 0, 1, 2에 관한 다음 덧셈표와 곱셈표를 자세히 보십시오.

+	0	1	2
0	0	1	2
1	1	2	0
2	2	0	1

×	0	1	2
0	0	0	0
1	0	1	2
2	0	2	1

이와 같이 정한 더하기와 곱하기에서 뺄셈과 나눗셈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세 수 {0, 1, 2}는 이 두 연산 (더하기와 곱하기)과 더불어 좋은 대수체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2x2=1 이기 때문에 1 나누기 2는 2가 됩니다. 1÷2=2 위와 비슷하게 여섯개의 수 0, 1, 2, 3, 4, 5에 관한 다음 덧셈표와 곱셈표를 보십시오.

+	0	1	2	3	4	5
0	0	1	2	3	4	5
1	1	2	3	4	5	0
2	2	3	4	5	0	1
3	3	4	5	0	1	2
4	4	5	0	1	2	3
5	5	0	1	2	3	4

×	0	1	2	3	4	5
0	0	0	0	0	0	0
1	0	1	0	1	2	3
2	0	0	2	4	0	2
3	0	3	3	6	3	0
4	0	2	4	0	2	4
5	0	3	0	5	4	3

이 대수체계가 세 수 0, 1, 2로 된 위의 체계와 다른 점은 수의 갯수가 더 많다는 것 이외에 2 나 3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등식 2x(?) = 1의 괄호안에 사용할 만한 수가 없고 따라서 1÷2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것도 할 수 없을 수 있고 2x4=4이지만 4÷4=2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논리는 구름잡는 맹랑한 얘기 같지만 이러한 이론들을 생각할 때면 스무살 반에 요절한 어린 수학자, 그 이름을 생각할 때면 소름이 끼치는 사람, 자기말을 못알아 듣는 한림원 학자들을 미워한 젊은이, 사람들이 아직 잠자고 있을 때 태양처럼 떠오르다가 사라진 천재 수학자 갈루아가 있었음을 슬퍼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완성된 갈로아이론은 알파벳기 순수수학을 공부하겠다는 것과 대학원에 들어가는 학생만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Évariste Galo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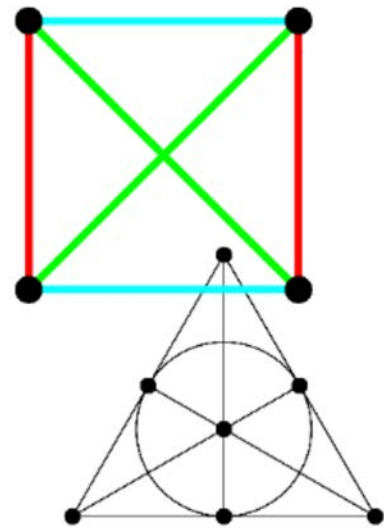
우리말 해설 Évariste Galois

3. 기하학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하학은 역사가 오래입니다. 기하의 점을 기본으로 하고 삼각형 등의 도형을 연구하는 것인데 현대의 기하

는 점이 무엇이라는 정의를 완전 배제합니다. 세상은 넓고 크지만 해(Sun)는 그 직경이 지구 직경의 백배나 더 큼니다. 하지만 태양계를 떠난 우주선 'Voyager 1'이 명왕성 궤도에 가서(약 40 au거리) 뒤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에 의하면 태양은 하도 작고 희미해서 사강교수가 'Pale Blue Dot'라 이름짓고 같은 이름의 책도 출판했습니다. 사진에서 해는 겨우 pixel 하나입니다. 하물며 그 옆에 붙어 다니는 지구는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사진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구는 태양의 만분의 일 크기이고 빛을 발하지도 않으니까요. 이만하면 기하학에서 점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할 수 없는 하나의 좋은 이유가 되겠지요.

점이 무엇이라는 것을 규정하지 않지만 1. 직선은 점들로 되어있다. 2.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있는 데 꼭 하나뿐이다. 3. 두 직선이 공유점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뿐이다. 등의 몇가지 공리들을 정하고 이론을 정리하면서 여러가지 도형에 관한 논리적 증명들을 해 나간 최초 기하학의 저자가 유클리드이고 그 책이 수백년동안 사용되었지만 아무도 인세를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개의 유한기하 Finite Geometry 모형입니다. 하나는 (4, 6) 즉 네점 여섯 직선으로 된 것이요 다른 하나는 (7, 7) 일곱 점과 일곱 직선으로 된 것입니다. 원은 직선이 될 수 없다는 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직선으로 간주 합니다. 둘 다 위의 공리 1 2 3을 만족하므로 훌륭한 기하모형입니다. 다만 다른점은 첫번 것은 평행선이 있고 두번째 것에겐 평행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 Non-Euclidean Geometry의 차이점은 평행선의 존재여부라고 하지만 이유가 하나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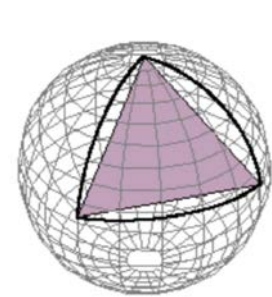
Encyclopedia of Triangle Centers

다 훨씬 많은 공리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삼각형에 관한 것을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의 오심이 라는 것을 배웠고 저는 그 다섯개 내심 중심 외심 수심 방심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Encyclopedia of Triangle Center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더니 무려 3만 9천 474 개가 있다고 되어있네요. 서양인의 역사에 대항해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전투기술이 발달하고 군배들을 만들어 대양을 돌아다니며 정복 노력정하고 사람들을 데려다 노예로 부려먹던 시대인데, 구면기하가 발달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따로 있지 않는 물위에서 가까운 길을 찾을 때 당연히 대원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것 입니다. 대원 Great Circle은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과 지구표면

이 만나는 부분입니다. 배가 가는 길을 정하는 항해사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항로를 찾아야 하고 적대적 함대를 피하느라 바빴겠지만 지상에 있던 학자들 중에는 구면수학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구면에서는 대원을 따라가는 길이 '직선'같이 되고,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세 각을 더하면 180도 각보다 크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면기하에서는 평행선 같은 것은 없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언제나 평각 (180도 각)보다 큼니다.

비유클리드 기하에 관해 한가지 의문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유클리드 기하는 19세기에 평행선에 관한 의문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항해술이 발달하고 구면기하를 공부하면서도 평행선에 관한 유클리드씨의 기



하학에 의문을 제기한 학자가 없었던 것이 이상하지 않 나요. 그리스의 Autolycus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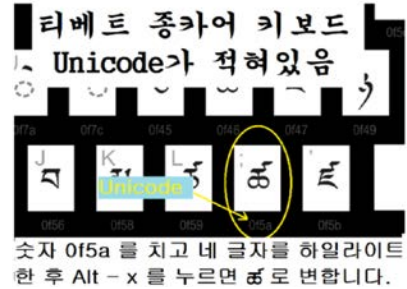
Pitane 이라는 분이 “움직이는 구면”이라는 책을 썼고 유클리드 본인도 이 사람의 업적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데 무려 이천여년 동안 비유클리드 기하는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4. 암호 (Coding)

가령 미국에 사는 T씨가 쓰련에 사는 P씨에게 "love" 라는 메시지를 아무도 모르게 보내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1. 먼저 영어 Love를 숫자로 바꿉니다. 76 111 118 101
2. 이 수를 다른 수로 바꿉니다. 152 222 236 202 (첫째 2를 곱했음)
3. 이 바꾼수를 P씨에게 보내고,
4.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 P씨에게 숫자를 바꾸어 보라고 합니다. (2로 나누기)
자, 이 과정에 대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1번에서 말을 수로 바꾸는 데 ASCII를 사용했고 이 코드는 미제이어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쓸 수 없습니다. 보내는 사람이 영어를 모르거나 꽃🌺을 보내고 싶다면 Unicod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의 꽃은 Emoji 중의 하나이고 Unicode 1f337 입니다.

2번에서의 문제는 수를 바꾸는 방법이 간단하면 중간 스파이가 쉽게 훔 수 있고, 너무 복잡하면 받는 사람에게 설명하기도 힘들고 신호를 보낼 때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정수론 Number Theory을 쓰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ASCII 코드는 수동 타자기를 쓰던 때 만들어졌고 타자기 자판이 기준이었으니까 글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확장된 Extended ASCII를 쓰는 데, 256(=28)개의 글자와 심벌이 들어있습니다. 반면에 Unicode는 1987년부터 여러사람, 즉 언어학자들을 포함 여러나라 인종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의 거듭 하면서 변화 발전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현재 14만 3,859 개의 문자와 심벌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Ph.D in mathematics, Cornell University>

아나운서라고 안경 착용·유튜버 활동 안 될 이유 있나요?

지성과 미모를 동시에 보증하는 직함 여자 아나운서. 남녀노소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 을 갖고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서 울대인이 있다. MBC 아나운서 임현주(산 업공학04·10) 동문인 그 주인공. “아나운서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선택을 받아 일하는 직군입니다. 그것만이 제 전 부가 되면 남의 눈치를 봐야 하죠. 캐스팅 을 위해 타인의 기대치에 맞추다 보면 점 점 나다움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송국 밖으로 활동영역을 넓힌 이유죠. 당연히 힘들어 요. 매일 새벽 일어나 방송일 하고, 휴식 시 간을 줄여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게. 하지 만 나다운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힘들어 도 최선을 다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 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믿는 구석이 있어 야 해요.”

나다움을 찾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진 임 동 문도 세상의 고정관념을 좇았다. 명문대학 에 합격하면, 지성과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되면, 행복은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믿었 다. 모교 졸업 후 KNN 경남방송, 종합편성 채널 JTBC를 거쳐 MBC 뉴스투데이의 메인 앵커가 됐다. 그러나 꿈꿔온 그 자리에 올 라선 순간 외려 더 불안해졌다. 여성 아나 운서는 ‘방송의 꽃’이란 말이 그저 수사가 아니라 걸 실감했기 때문. 시청률이 저조 해 분위기를 바꿔보자, 하면 제일 먼저 진 행자를 교체했다.

“중후한 남성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뉴 스 진행의 공식처럼 된 상황이라 여성 아

나운서에겐 긴 호흡으로 경력을 쌓을 기 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일찍 주목받 는 동시에 빨리 소진되는 셈이죠. 뉴스를 보는 눈을 키우는 것 못지않게 외모를 가 꾸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게 되 고요. 아나운서의 제1 경쟁력이 외모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가꾸지 않으면 선택 받지 못하고, 방송을 못 하면 내공을 쌓을

지금의 행복 좇아 다양한 도전

강연 칼럼 이어 수필집 출간도

수도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2017년 12월 26일 임 동문은 ‘다시’ 뉴 스 투데이의 진행을 맡았다. 뉴스는 정확해야 하는데 틀리면 어쩌나, 내가 멘트를 바꿔 도 될까, 자신감 이이 끌려다니며 일했던 아픈 프로그램이었다. 이젠 정말 자유롭게, 언제 그만두더라도 후회 없이 해보자 다 진했다. 얼마 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됐 고, 컬링 국가 대표팀 김은정 선수가 ‘안경 선배로 화제’가 됐다. 그리고 보니 여성 앵 커를 포함해 일하는 젊은 여성들이 안경을 쓰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들 안 쓰니까 안 쓰는 고정관념이었다. “그렇다면 나부터 안경을 써볼까.” “당시 저는 아침 6시 뉴스 진행을 위해 세

벽 2시 40분에 일어나 방송을 준비 했습니 다. 잠이 부족하고 눈이 늘 피곤 했어요. 하 면 안 될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저 또한 관 행에 얽매어 있었죠. ‘안경 쓴 여자 아나운 서’는 뜻밖의 화제가 되어 국내는 물론 외 신에도 소개됐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관 심과 격려를 받았어요. 매력 있는 사람으 로 보이고 싶은 욕심은 물론 있죠. 하지만

자신이 원할 땐 될 꾸밀 수 있는 용기와 선택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임 동문은 그날의 작은 결단 이후 어떤 결 정을 내리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 까? 질문하게 됐다. 스스로 고정관념에 갇 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타이트한 원 피스로 대표되는 ‘아나운서 룩’에 서 벗어나 편안한 셔츠와 바지를 즐겨입었고, 방 송국을 넘어 작가·모델·유튜버·만화가·출판 편집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교류했 다. 나답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신기할 정 도로 좋은 인연이 많이 생겼다고. 올해 들어 집 근처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 한 임 동문은 내쳐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다. 아나운서에 멈추지 않고 방송국 밖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 해가는 시도를 담은 게 첫 번째 책 이라면, 집필 중인 두 번째 책에선 13년차 직장인으로서 이제 막 사 회생활을 시작한 2030 여성들에게 전하는 조언을 담을 생각이다. “모교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고 그와는 거리가 먼 아나운서가 됐지만 공부한 게 아깝다는 후

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대로 열 심히 놓고 열심히 공부했던 즐거움 학창 시절 추억으로 남아 있으니까요. 아예 도 움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같은 캠퍼스 를 공유했던 분들께 감사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분명, 하면 안될 이유 없을 거예요.”



‘모국의 산업발전’ 위해 일생 바친 공학자



/ 사람, 사람들 /

이용락 박사 공대 48/ 미주동창회장 역임(6대)

“내 인생의 목적은 모국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여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 6대회장인 이용락 회장은 일생을 한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학자이다. 일본 군수공장의 노무자로, 소련군 포로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방을 맞이했고, 일본 식민지시대를 경험하며 부강한 나라를 꿈꾸며 마침내 기계공학도의 길을 선택했다.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공부한 후 미국에 머물면서도 한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재미한국과학기술협회(KSEA) 중서부 지부창설은 물론 휴가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한국을 오가며 국책사업에 참여했다. 좀 더 한국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적 고난을 감수하고 사설 연구소도 창립했다. 이처럼 일생을 모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용락 박사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동문들께 소개한다. <편집자 주>

아래 글은 동창회보가 기획하여 진행중인, 동문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기록하는 난에 초대되어 쓴 글입니다. 편집부에서 낸 질문서를 보며 쓴 초고가 망백의 시점에서 쓴지라 길어져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대미문의 역질 코로나(Covid-19)로 만나 보지 못하는 동문들을 생각하며, 모두 안녕하시기를 바라며 씁니다.

1.미국에 오게된 이유는

나는 공대 기계공학과에 1948년도에 입학하여 625 전란 중에 군 복무를 지원하여 마치고 복학 후 1953년 3월 졸업하였다. 1957-58년 영국의 British Council Scholarship으로 Royal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Glasgow, Scotland)대학원에서 Power Engineering분야의 Postgraduate Diploma를 받고 귀국하여 부산대학교 공대 기계공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공대 학장이던 김형규 선생의 권유로, 1963년 문교부에서 전국 대학교수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미 국무성의 폴브라이트 장학금(1년에)에 응모하여 선발된 합격자(인문계, 이공계 포함 9명) 중 일원이 되어, 1964년 University of Illinois, Urbana-Champaign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1년 장학금이 끝날 즈음, 지도교수이던 S. L. Soo 박사의 연구 조교가 되어 학비 걱정 없이 1969년 박사학위를 마칠 수 있었다(박사 학위 논문은 Turbulent Jet of a Charged Suspension, August, 1969). 박사학위 논문을 써놓았지만, PC가 없던 당시에는 타자수가 긴 시간동안 일일이 타자해야했고 나의 연구조교 월급이 없었기에, 가족은 Urbana에 둔 채 시카고 근교의 Borg-Warner 연구소의 Heat Transfer 실에 취직해서 주중에는 직장에서 주말은 집에 가서 타자된 논문을 점검하고 가족과도 만났다. 드디어 8월8일로 정해진 논문발표와 심사 교수들의 질문에 대한 방어 답변을 마치고 나왔을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S.L. Soo 박사가 “축하합니다. 이 박사!” 라고 했던 그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직장에 돌아와 온갖 기다렸다는 듯이 Manager가 불러 갔더니, “다르네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하기에 폴브라이트 규정상 학업 후 귀국하여야 한다고 말했더니, “그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줄 터이니 염려말라”고 해서 그 연구소에서 계속 일했다. 결국 이 연구소의 힘으로 귀국 의무의 면제 대상으로 추천되어 미국에 영주하여 연구자의 길을 걸었다.

2. 나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 보며

일본 군수공장 노무자, 소련군 포로, 밀선타고 남한행 등

많은 어려움 겪고 해방 경험 파란만장한 어린시절 보내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도움 되고자 기계공학도 선택

국무성 폴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행, 박사학위 까지

나의 삶의 도정은 파란만장하였으나 대인관계의 의리를 중중하는 인성관과 대학입학 시 공학도가 되어 해방 조국의 산업경제에 기여하리라는 초지대로 살아 온 것 같다. 1945년 4월 초 당시 재학중이던 만주(滿洲) 길림의 길림중학교(吉林中學校) 4학년에 진학하자마자, 만주 북부 봉천(지금의 심양)의 일본 관동군(關東軍)의 군수공장(폭탄용 화학공장)에, 일본인 동급생들과 함께 노무자로 동원되어, 8.15 해방 때까지의 4개월 동안 생지육을 경험했다. 진주한 소련군의 포로생활도 2개월간 경험했다. 또 외가인 함북 일신(日新)에 돌아와 북한이 적화되는 상황을 보며, 1946년 8월 부모님과 함께 밀선(18톤 발동선)을 타고 자유를 찾아 공해(公海)를

하하여 포항에서 하선하여 서울 황금정(지금의 을지로) 27가에 아버님이 8.15 해방과 더불어 마련해 두신 집에 도착하였다. 나는 무녀 독남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며, 한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나, 대학진학 시 기계공학도가 되리라는 결정은 법과대학을 가라는 아버지의 기대나 의과대학 진학을 원하시던 어머니의 소망과는 다른 것이었다. 나는 조국이 일제식민지가 되어 일본 경제의 소비지로 전락하였던 현실을 보며 자립 부강하는 나라는 공업이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기계공학도의 길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대학입학 후 적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으나 초지대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3학년이 되

었을 때 동족상잔의 625 사변이 발발하여 국군에 지원입대하여, 제대 후 부산으로 피난 간 전신 연합대학에서 비가 오면 새는 가교사에서 공부하여 1년 후배와 같이 1953년 3월에 졸업하였다. 당시 취업이 어려운 때라 우선 UNCACK (UN Civil Assistance Command, Korea)에 한국신문 번역관으로 6개월 근무할 기회가 있었고 풍족한 월급도 받았다. 그러나 졸업 후 당시 기계공학과 출신자의 일자리가 없던 때였고 당시 가장 인기있는 직업은 고등학교 물리나 수학교사였다. 나는 초지를 따라 박봉이지만 부산 영도의 대한조선공사(大韓造船公社)에 기수(技手, 공원과 기술자 위의 직책)로 취직하였다(기수의 봉급은 고등학교 교사 봉급의 50%이고 번역관 봉급의 43% 정도 였음). 이 직책은 영업부에서 주문 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부 등 각 부의 요청에 따라 현장의 공원부 사이에서 조정 역할을 하는 일이었다.

1년이 지난 1954년 당시 조선공사의 기술고문이자 부산 수산대학 조선헌학과장인 조운제 교수의 요청으로 수산대학 어로학과(漁撈學科)의 “선박기관학”과 조선헌(造船學科)의 “기계설계학”을 강의 맡게 되었다. 이는 뜻밖의 기회였는데 대학 2학년 때 정재구(鄭在求) 교수(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졸업)에게서 잘 배웠던 기억과 강의내용을 충실히 기록한 나의 공책이 힘이 되었다. 또 1년 동안 조선공사의 선박기관실에서 실무를 보며 독학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 마음의 준비가 되어, 대학 초임강사를 시작하였다. 당시 대학교육은 전쟁 후라 도서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고, 대학생 시절의 강의 필기 공책이 중요하였는데, 전란 중 을지로 27가에서 황금피 피난 보따리를 싸서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생활을 하였는지라 그 공책이 살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로 서울에 계신 어머니가 알려 왔다.

또, 강사가 되기까지에는 조선공사에 함께 재직하면서 서로 신뢰하며 가까이 지냈던 일제시대의 육군항공대 조종사 출신인 김택만씨가 수산대학의 선박기관학과 강사로

나를 조운제 학과장에게 추천한 것을 나중 에 알았다. 당시 25세로 나보다 연장자인 28세의 가장을 포함한 학생들을 상대로 넓은 바다를 누빌 어선의 선장으로 나갈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90분을 쉬지 않고 열강하였고, 학생들도 그대로 따라서 나름대로 보람된 기억으로 남아있다.

3. 인생에 있어서 행운의 대표적인 예

모교 졸업 후 기계 공학도로서 학업과 연구자의 길을 평생 가는 길에는, 세번의 기회가 반전의 국절 속에서 행운으로 다가왔다. 첫째, 1955년 국비유학 장학생으로 33명 중의 일원으로 선발되었다가, 국가 예산 부족으로 취소됐다. 두번째는 1957년 단 두 명씩 선발된 British Council Scholarship의 장학생

모국 산업발전 이바지 위해 노력

KSEA 창설, 한국 국책사업 참여

사설 연구소 설립으로 모국 지원

으로 선발된 것. 세번째, 1964년 미 국무성의 1년 장학금으로 유학와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구자의 길을 가게 된 과정이다. 이 과정의 자세한 사연은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며 나의 삶의 과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나의 애국적 초지의 발현

나는 Borg-Warner 연구소에 근무하면서도 항상 모국의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길을 잊지 않았다. 드디어 그런 기회가 왔다. 1971년 12월에 재미한국과학기술협회(KSEA)가 미국 동부의 과학기술자들 중심으로 창설되었으며, 시카고에서도 1972년에 KSEA 중서부 지부를 결성하는데 나도 참여했다.

KSEA는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의 산업경제발전을 위한 방대한 계획을 실현하는데는, 산업경제 발전의 기초인 과학기술자들의 보고인 미국에서 재미한국과학기술자들의 한국으로의 유치가 급선무였다. 나는 1974년에는 KSEA 중서부 지부장, 1981년에는 KSEA 전국회장을 맡아 많은 인재들을 한국으로 가는데 일조하였다. 나 자신도 나의 휴가를 가족과 보내기 보다는 한국의 초청으로 거의 매년 귀국하여, 한국의 국책연구소 및 산업체로 부터의 자문에 응했다.



재미한국과학기술협회(KSEA) 멤버들과 함께.

그러나 미국의 산업체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의 기술발전에 이바지 하기에는 큰 제약이 있었다. 그리하여, 내 나이 57세에 Borg-Warner연구소를 조기 은퇴하고 Heat Transfer Research & Development, Ltd.(HTRD)라는 사설 연구개발회사를 창설하였다. 미국정부의 연구비도 받아서 한 연구 결과를 학회에 출판하고 나면, 그 이후의 지적 재산권은 나의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한국을 위하여 이바지 할 수 있었고, 한국의 대기업의 용역도 맡았다. 그러나 사설연구소 창립은 개인의 경제에는 큰 모험이었다. 그래서 상당기간 경제적으로 고난을 겪었다. 그러나 내가 저지른 일기에 고난을 감수했다. 이런 시대상황과 국절 끝에 내 나이 80이 넘어서야 HTRD가 호전되어, 90이 넘는 지금 아직도 어린 손자 손녀들의 대학진학 기금에도 기여하고, 아내를 위한 장기 건강보험도 확립해 놓았고, KSEA 등 사회단체에 기여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도 내 힘 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가호라 생각하고 감사드린다.

5. 그 동안 여행과 추억에 가장 남는 곳

간단히 여행지만 나열하자면, 두번의 캐나다 단풍 구경, Brazil과 Argentina와 그곳의 Iguazu폭포,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 동상, Argentina의 탱고 원산지와 Peron의 묘지 방문, Costa Rica의 온천지대와 열대 동물원 구경과 1958년 영국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기 전에 어머니께서 보내 주신 \$350 (현재 가치로 \$3,500이상)로 유럽여행 한 것과 2017년 세 아들과 첫 유학지를 60년만에 돌아 본 수구초심의 추억의 여행이다. (동창회보 2021년 3월호 게재)

6. 수상 기록과 소감

나는 남 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다음과 같은 상을 받은 바 있다. 1) 1985년 과학의 날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특수 열교환기의 개발한 공로로 받았다. 2) 2009년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에서 최고상인 Outstanding Contribution to KSEA Award를 받았다. 3) 서울대학교로 부터 2010년 (이장무 총장)과 2019년(오세정 총장)에 공로상을 받았다.

7. 사업 혹은 나의 성공담

미국에서의 나의 첫 직장은 Borg-Warner 연구소 연구원이었고, 1986년에 사설연구소(HTRD Ltd)를 설립하여 35년간 운영했다. 나의 목적은 모국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었고, 그 목적을 달



아내와 함께한 봉사활동

성하여서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

8. 서울대 미주동창회에 바라고 싶은 점

미주 서울대 동창회는 모국을 떠나 광활한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동문들이 동문수학의 연으로 선우배가 서로 사랑하면서 돕는 조직이다. 미주 총동창회가 창립된지도 벌써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목민처럼 운영되고 있어 우선 동창회관이 고정되길 바란다. 이 광활한 땅에 우리 미주총동창회가 모교와 서울대총동창회와 협력하여 SNU House를 미국의 동부, 서부 및 중부에 마련하여 모교의 대학원 학생 및 교수들이 미국에 연구하기 위하여 체류하는 동안 도움이 되는 시설로 발전하기 바란다.

또한 이 시설은 우리 동문들의 자제와 손자들이 대학 진학을 위하여 “Campus Tour”를 할 때 부모들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는 기회가 되며, 이 구상은 본인이 재임하던 6대 집행부(2001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동창회보 (SNUAA Chicago-SNUAA USA Newsletter Archive 2001-2003)와 평의원회에서 동문들이 제안한 바 있다(http://www-world.com/snuuausa-newsletters_archive/snuuausa111-112_20030628.pdf). 우리동창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인 의료, 자동차, 주택 등 특수보험사업을 펴면 8천명의 우수한 동문들의 상부상조



어머니(맨 왼쪽)와 세 아들, 그리고 작고한 첫 아내

하는 사업이 되며 그 이윤으로 모교에 재학 중인 후배와 동문들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의 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대략 3천명의 집단이 되면 보험사업은 유망하다 함). 이러한 목적을 가진 SNU House의 구체적인 설립 계획과 사업 예산들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면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종신이사비와 독지가들의 큰 뜻있는 출연으로 설립 구성은 구체화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맺으며 본인 가던 신학도의 길에서 특별한 인연으로 어린 세 아들을 둔 상처한 공학도와 결혼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한 나의 아내 조윤희에게 감사한다.



세 아들, 아내와 함께.



이서희(법대 70)

/ 동문 시 /

항해 보트

어디까지 왔는가.
돛을 올리고 또 다시 인생의 항해를 시작한다.

항구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저 배는
우리의 모습일터.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수확했는가.
어린애들은 처녀항해를 시작하겠다고 아우성인데

우리가 뿌린 이 씨앗들은 자라나서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까.

현란한 빛과 부수어지는 파도소리에 묻혀
돛배는 푸른 바다속에서 일렁이고 있다.



김기형(상대 75)

/ 시 번역 /

月影臺 李 滉

老樹奇巖碧海埂 孤雲遊跡總成烟
只今唯有高臺月 留保精神向我傳

고목과 기암이 드리운 푸른 바닷가 절벽아래
고운이 놀던 자취 연기되어 간 데 없고
오로지 높은 대각 위에 달만이 떠서
청명한 빛과 그의 정신을 나에게 비추어 주네.

供亮의 해석

고목과 기암이 어울어진 바닷가 절벽에서
고운님 한갓되이 거니던 모습 홀연히 사라지고
이제 저 누각 높이 외롭게 걸린 달은
님의 맑으신 뜻 이 몸에 전해 주려 하심인가

孤雲: 崔 致源의 자

퇴계는 은연중 700 여년의 세월을 넘어 천재 최치원의 정신을 이어 받고 있음을 경외롭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비록 세월은 흘러도 뜻은 통하고 대화가 가능함을 달빛을 통해 channeling 하듯 보여주 고 있다. 생각해보라. 시공을 초월하여 선각자와 대화 할 수 있음이 란 이 어찌 커다란 기쁨이 아니리요. 허나 奇巖과 또 唯有가 상징하 듯 흔하지 않고 외로울 뿐이다. 깨달음이란 석가모니처럼 天上天下 唯我獨尊이라 외로울 뿐이다.

430년 후 공랑의 억지 해석



제15대 신용남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뉴욕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하나님 나라의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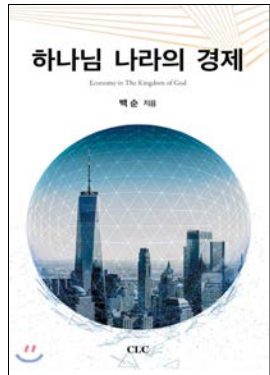
백순
(법대 58)

백순 동문은 1960년대 말 도미하여, 경제 학 자 로 서 성장하여 최근까지 교수 를 역임했다.

은퇴 후에 자신의 학문적 성과와 신앙

의 내용을 접목하여 재해석하는 삶을 시작했는데, 이 책은 그 첫걸음이다. 신앙이 깊어지다 보면 흔히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기 쉽다. 세상과 교회, 비신자와 신자의 구도로 삶을 나누고, 교회와 신자의 삶을 선택한다는 명분으로 다른 쪽을 돌아보질 못한다. 따라서 한 쪽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

다시 말해, 크리스천은 세상과 비신자의 영역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 이 작업에 경제생활이 참 많은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저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



라를 살아감에 있어 꼭 살펴보아야 할 경제생활에 대한 통찰을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경제학의 여섯 가지 분야(경제인의 정체성, 경제 원리, 생산, 소비, 분배, 정책 등)를 성경의 진리와 접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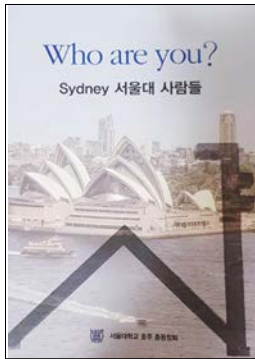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한 번쯤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경제에 관련된 내용을 신앙과 접목시켜 생각해 봄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다.

<soonpaik@hotmail.com>

Who are you? Sydney 서울대 사람들

서울대학교 호주총동창회(회장 김정인)가 동문집 'Who are you?Sydney 서울대 사람들'을 발간했다.

서울대 시드니지부 동창회는 1971년 4월 말 시드니총영사 관저에서 모임을 계기로 창립됐다. 1969년 서울대 본교 동창회 창립 불과 2년 후 시드니지부 동창회가 출범한 것. 윤 한인회장은 동문집 발간 축하사에서 "서울대 호주 시드니 동창회 역사는 시드니 한인동포사회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8년 12월 27일 발족한 시드니한인회의 초대 우제린 회장께서 3년 후(1971년) 서울대 호주 시드니지부 동창회 초대 회장이 되셨다."라고 회고했다. 서울대 동문들은 시드니에 약 150명, 멜번 약 40명, 브리즈번 30여명, 캔버라 6명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입학연대를 10년씩 구분해 비슷한 연령대의 동문들이 친목을 도모한다. 동문집에는 이희범 총동창회 회장과 신응남 미주동창회 회장의 축사가 실렸다. 신 회장은 축하사에서 새로운 반세기 50년 역사를 써 내려갈 호주 동창회에 힘찬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미주 동창회와 호주 동창회 동문 가족이 팬데믹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만날 수 있는 날을 기약했다.



이 동문집에는 40여명의 동문들의 글이 수록됐다. 글에는 동문들의 인생 철학이 담겼고 이민자들의 삶을 경험한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동문들 다수가 출판 비용을 분담했고 또 일부는 후원금을 내는 등 선후배간 우애를 나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동포사회에서 거의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황이지만 서울대 동문들은 지난 주 시드니한인회관에서 '시드니 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동문집 발간' 축하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동문집을 원하는 분은 미주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 한국 동창회 '화제의 책' /

그들까지도 인생이니까

박용만(경영73·두산 인프라코어 CEO)

유투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 중인 한 국내 재벌 회장의 영상. 아침 출근 부터 저녁까지 회장의 일상에 동행한 방송사 다큐멘터리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멋있다', '생각보다 검소하다' 등 연예인 영상 못지않게 댓글이 올라온다. 그 회장이 직접 운영하는 SNS. 다큐멘터리에서 마신 커피가 '믹스 커피'인지 묻는 누군가의 질문에 답이 달렸다. "ㅎㅎ 믹스 커피 아닙니다". 해외 출장길에 올린 소감은 이렇다. "가는 데마다 코 떨어지게 춥다. 뜨겁고 얼큰한 찜자에 소주나 한 잔 했음 딱 좋겠다". 소탈하고 군더더기 없는 언행에 재계 '소통왕'으로 불리는 이 사람, 박용만(경영73-78분회 상임부회장)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이 첫 책을 냈다. 산문집 '그들까지도 인생이니까'. "자서전은 아니고 늘 그랬듯이 내 생각을 글로 옮겨 즐기자는 생각에 써 내려간 책"이다. SNS에 즐겨 쓰는 단상으로 글 근육을 인정받은 그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썼다'는 말이 믿길 만큼 솔직하고, 유쾌하다. 경영자와 아버지, 나이들에 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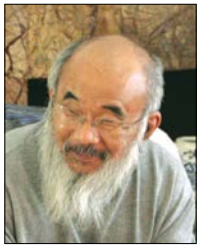
해가는 중년 남성이 갈피마다 머무른다. 책은 대기업 오너가 집에선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멀리 똥을 똥다는, 다소 충격적인 고백을 동반한 개인사로 운을 똤다. 첫사랑 아내 이야기, 아버지 고 박두병(경성고상32출초대 총동창회장) 두산그룹 초대 회장과 박용성(경제59-65) 전 두산중공업 회장, 박용현(의학62-68) 연강재단 이사장 등 형제간 일화도 살짝 공개했다. 별독 알레르기가 있는 줄도 모르고 벌에 물렸을 때, 넷째 형(박용현 동문) 덕에 목숨을 건졌다고 돌아봤다. 청량음료 영업부에서 시작해 기업 최고경영자와 대한상의 회장에 오르기까지 경영인 박용만의 이야기는 담백하게 풀었다. 밥캣 인수 당시의 비화와 지루한 협상에서 승기를 켜 대목이 흥미진진하다. 기업과 동료의 명운을 짊어진 리더의 무게를 진중하게 토로하는 한편 체면 구긴 이야기도 거침이 없다. 지갑도 없이 임원들과 냉면 회식 후, '두산그룹 회장'으로 직접 외상을 달고 나와 지나가던 사원에게 용통해 갚은 일화는 유명하다. 책 제목의 '그들'은 무엇을 뜻할까. 아버지의 임종을 앞두고 아북 형들이 사는

집에 처음 발걸음하던 열여덟 살의 기억 일수도 있고, 여기저기 잔고장 많은 몸일 수도 있겠다. 젊은 사원들과 시시콜콜한메일을 주고받으며 아버지같은 회장님 으로 불렸던 이면엔 2015년 신입사원희망퇴직 논란으로 죽을 듯 힘들었던 시간이 있다. "어린 사원들은 건드리지 말라"던 그의 당부와 다른 경영진의 결정이었지만 "아차피 나는 분노조차 표현할 수 없는 위치"라며 마음을 삭였다. 취미와 관심사를 내비친 대목에선 곧 맞이할 '자유인'의 삶을 어림짐작하게 된다. 2월 말 8년 가까이 맡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서 퇴임했다. 가을엔 두산인프라코어 회장직을 내려놓는다. 한때 "매그넘까진 아니어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이따금 송고하는" 사진기자를 꿈꿨고, 틈나면 카메라를 쥔다. 최근 흑백 사진만 찍어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yongmaan park)을 만들었다. 젊은이들과 도시락을 만들어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봉사도 열심이다. 책 인세는 그 식재료 구입에 충당할 계획이다. 아버지 1,000부 한정으로 책에 친필 사인을 넣



었다. 기자가 발행일에 온라인 서점에서 산 책을 펼쳤을 때, 처음엔 복권에 당첨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거침없는 필체로 적힌 메시지.

"천 번째 사인본입니다. 그냥 책 한 권이지만 내 마음속에선 천 마리 학을 접고 접어서 담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 책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찜나게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님의 마음에 내려앉은 학을 위해, 그리고 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박용만 드림"



장소현(미대 65)

/ 미술칼럼 /

오늘도 그림이 내게로 온다

‘물의 화가’ 안영일 화백의 작품세계

‘물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안영일 화백이 지난해 12월12일 세상을 떠났다.

안 화백은 “오늘도 그림이 내게로 온다”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캔버스 앞을 떠나지 않는 열정을 보였다. 아마 지금도 햇살을 받아 춤추며 반짝이는 물결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평생 사각의 캔버스가 그의 세상이었다. 그림밖에 모르는 아이처럼 순수한 영혼... 그가 그림이요, 그림이 곧 그이다.” 오랜 세월 안영일 화백의 작업을 애정 어린 눈길로 지켜봐온 한국일보 정숙희 기자의 말이다. 공감한다.

안 화백은 미국 주류 미술계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낸 한인 작가 중 한명이다. 미주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LA카운티미술관(LACMA)에서 초대전을 가진 화가이기도 하다(2017년). 생전에 미국의 유수 뮤지엄에서 대규모 초대전을 가진 한국 화가는 많지 않다. 백남준, 이우환 정도이고, 서부지역의 작가로는 안영일 화백이 유일할 것이다.

그의 이름 앞에 ‘최초’ ‘유일’ 등의 수식어가 붙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57년에 미국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었으니, 아마도 미국에서 제대로 된 개인전을 가진 최초의 한인화가일 것이다. 또한 2002년~2005년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를 선정하여 임명하는 ‘미술 대사(大使)’로 임명되었는데, 미국 정부의 미술 대사로 뽑힌 한인작가는 안영일 화백이 유일하다.

안 화백이 미국 주류사회에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는데가 마침 단색화의 인기가 높아져 ‘제2의 단색화’라는 표현이 씌갈 어울리는 활동상으로 화가로서의 절정기를 누리던 중에 세상을 떠난 것이 못내 아쉽다. 이제부터 삶의 정수가 깃든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반가운 것은 안 화백의 작품세계를 높이 평가하는 유수 뮤지엄이 회고전을 기획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올 가을 전시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이를 계기로 많은 전시회가 열리면서, 화가 안영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위상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영일의 바다, 그리고 음악

널리 알려진 대로 안 화백의 대표작은 ‘물’ 시리즈다. ‘물’ 시리즈 대작들을 보면 커다란 화면이 음악으로 가득 차 출렁인다. 물의 출렁임은 곧 음악이다. ‘물’시리즈가 탄생한 배경을 설명한 작가의 글은 매우 인상적이다. 한국에서 온 젊은 화가가 있었다.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였지만 타국땅에서 홀로 외로웠다. 그는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바다를 자주 찾았다. 고향땅과 이어져 있는 태평양 바다! 거기서 그는 바다가 연주하는 거대한 ‘빛의 음악’을 들었다. 그 음악은 자신의 핏속에 진하게 스며있는 음악을 깨워 일으켰다. 음악! 막막하고 감잡하던 시절, 태평양 바다의 반짝이는 물결이 작가를 수렁에서 건져주었고, 빛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는 사연... 마치 우리 인생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물’ 시리즈에 대해 작가는 ‘내가 이걸 그리기 위해 지금까지 화가로 살았나 생각하며’ 평생의 작업을 끌어냈다고 회고한다.

“나는 한없이 겸허해져서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바다의 신비로운 모습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었다. 그날부터 바다는 내 속에 살고 있었고, 나는 바다의 일부가 되었다.” 안영일의 ‘물’ 시리즈는 이렇게 태어나, 20년



물(50x44inch)

넘게 이어졌다. 그는 열심히 바다가 연주하는 장엄한 음악을 화폭에 담았다. 아무리 그리고 또 그러도 지치지 않았다. 물은 곧 음악이요 철학이었다.

그가 추구하는 작품세계의 핵심은 음악성, 즉 신의 목소리이다. 오랜 세월을 걸친 창작생활 내내 우직스러운 정도로 일관되게 음악성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그림을 듣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다. 그의 그림은 보면서 동시에 들어야 한다. 캔버스 가득 펼쳐지는 음악이기 때문에. 안영일 화백의 음악성은 타고난 것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미쳐, 늘 음악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클라리넷, 피아노 등 몇 가지 악기는 수준급으로 직접 연주도 했다. 그런 음악사랑이 자연스럽게 화면을 지배하면서 공간으로 재해석된 또 하나의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낸 것이다.

■ 작품세계

안 화백의 작품 경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은 작가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물’ 시리즈를 비롯한 음악적 추상작품들이다. 두 번째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의 모습을 음악적인 화달한 필치로 그린 작품들이다. 세 번째는 추상적 화면 구성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해변풍경, 한글이나 탈 또는 미국 국기 등의 구체적인 이미지가 드러나는 작품들이다. 이런 경향의 작품들로는 성조기와 독수리 등의 형상을 통해 9.11 테러에 대한 감정을 담은 작품들이 호평을 받았고, 한글이나 탈 등의 상징으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들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열의 작품들을 통해 작가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문화적 뿌리를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나이가 들고, 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작품의 주제로 떠올랐다고 작가는 말했다.

안 화백의 경우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경향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음악성이라는 공통성이다. 음악에 비유해서 말하자면 두 번째 경향의 작품들은 가



만들어낸 ‘그림을 듣는’ 기쁨에 젖는 것이다.

■ 노대가의 뜨거운 목소리

정상에서 남긴 노대가의 뜨거운 목소리는 젊은 작가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것은 미주 한인사회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미국 유수의 뮤지엄 초대 전시회는 내가 올라산 산마루의 가장 높은 지점이다. 하지만 산마루에 서고 보니 길은 막다른 곳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이어져 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겨 놓는다.” “나는 늘 시작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거 같았다. 그러나 이제야 겨우 뭔가 보이는 것 같다. 지금부터 정말 그리고 싶은 작품을 해볼 수 있으려나. 계속 변화하고 있는 나의 작업은 멈춤도 없고 완성도 없다. 살아있는 한 나는 매일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이다.”

안영일 화백 (1934-2020)

1934년 개성에서 화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일찍부터 천재 소년화가로 불리며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고등학생 시절에 국전에 특선을 차지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1958년 서울미대 졸업 △1957년 주한미국대사관 주최 초대전 △1959년 시카고 홀 하우스(Hull House) 초대전 △1962년 핀란드 헬싱키 USIS 갤러리 초대전 △1966년

서울 프레스 센터 개인전 △1971년 LA 재커리 월러 갤러리 초대전 △1985년 베벌리힐스 아티스트 로프트 갤러리 초대전 △1998년 런던 새크빌 갤러리 초대전 △2002~2005년 미국 국무부 미술대사(Artist Ambassador)로 선정되어,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미국대사관 작품 전시 △2015년 롱비치 뮤지엄 초대전 △2017년 LA카운티 뮤지엄 초대전, 롱비치 뮤지엄 초대 개인전, 서울 현대화랑 초대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사가 붉은 가곡 정도가 될 것이고, 세 번째 경향은 주제가 있는 실 내악쯤에 해당하지 않을까? 안 화백은 전시장에 걸린 크고 작은 작품들이 전체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커다란 교향곡을 만들어나도록 배치한다. 아름답다. 그래서 관람객들은 작가 안영일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박진국(의대 65)

/ 산행기 /

남가주 산악회 활동보고

Covid-19 Pandemic 3차 Peak로 올해 1월처럼 Lock Down으로 인해 산행을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 회원이 한번 이상 Vaccine를 맞고, 일주일 간격으로 두번 산행한 경험을 보고 드립니다.

LA National Forest가 큰 Bobcat Fire와 눈으로 길이 막혀서 LC County 주변을 택할 수 밖에 없었는데, “내 집 주위에 숨겨진 보물은 찾는 사람 몫이다.”라고 말하면 과언일까요?

남가주에 Wet Season이 시작되고, 산에 두번 째 눈이 온지 닷새 후 1월 30일 아침에는 LA County 바로 위 Ventura County 남단 Beach 쪽에 있는 Point Mugu - La Jolla Valley Sate Park으로 산행하러 갔습니다. 눈 덮힌 산을 구경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10.8miles의 긴 Loop Trail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날씨는 화창하고 태평양은 새파랗게 아름다운데 Beach를 아래로 보며 Ray Miller Trail을 2.7miles 남쪽으로 걸으며 몸을 풀기 시작했지요. 산

행은 Sycamore Canyon이 보이는 Fire Road와 만나는 데까지 그림 같은 바다 경치에 취하여 PCH 1번 도로 하에 있는 Point Mugu 바위 뒤로 보이는 Channel Island National Park의 Anacapa와 Santa Cruz섬을, 야생화 필 때 꼭 다시 방문하는 즐거운 꿈을 꾸었습니다.

작은 Trail이 Overlook Fire Road와 만나는 곳에서 Grand Sand Dune(사실은 Small Coastal Dune)을 내려다 보며 점심을 먹었습니다. Overlook까지 올라가는 길에서는 Santa Monica Mountain에서 두번째로 높다는 Triple Peak를 시종 바라보며 망원경의 초점을 동남쪽 Meadow에 있는 Private Ranch에 맞추었습니다. 1.1miles 이상 더 걸어 Top에 올라가니 Santa Barbara와 Los Padres Mountains가 흰 눈으로 덮힌 장관을 볼 수 있었습니다. Rancher의 꿈과 절단된 65miles의 Backbone Trail Hiker 꿈이 둘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Trail. 왜 이곳이 One of the Best Trail인지를 알 것 같습니다. 6miles 정도 산행을 해주신 김동근 대장님께

감사하며 급하게 2시간 이상의 집으로 Drive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 2월 6일 Orange County 남단(사실은 Riverside County) Ortega Hwy 옆 Sitton Peak(3275fts)를 14명의 대원들이 9.6miles roundtrip + 2150fts gain으로 산행했습니다.

마지막 350fts의 Guerilla Trail을 모두가 올랐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Santiago와 Modjeska Peak 다음 세번 째로 잘 알려진, 그리고 잘 관리된 겨울 산행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행 후에는 직접 눈으로 Parking Lot에서 확인하였는데 별로 아름답고 특징있는 모양이 아닙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지런한 젊은 Hiker들이 아침 7시부터 와서 9시에는 Parking Lot이 다 찼고, 3.2miles 지점 Four Corner에 사는 San Mateo Mountains와 Creek가 미국 최대의 해병대 훈련소인 Camp Pendleton쪽으로 터져 보이고, OC와 San Diego County 접경인데 바람은 조금 불어도 아직 높은 산과 바다는 안 보입니다. 0.9miles을 더 올라가면 높아지며 San

Gorgonio Mountains가 흰 눈으로 덮혀 보이고, 0.8miles을 더 걸어 350fts의 Peak까지 기어 올라가면 주위의 50miles이상 거리에 있는 산과 바다가 보입니다. 높이 않아서 Top of the World까지는 안되나, 운 좋게 날씨가 워낙 청명해서 Santa Catalina섬, San Bernardino와 San Jacinto Mountains가 다 보이는 게 아닌가요?

마지막 4명이 20분 내에 정상에 도착했을 때는 박수로 축하했습니다. 여자 회원 6명이 앞서서 20분 먼저 내려 와서, 저녁식사를 위해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Instant 우동, 어묵, 삶은 달걀 그리고 노란 단무지를 저녁식사로 야요 식탁에서 끝났을 때는 Parking Lot에 우리 회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 Trail Hiker들이 거의 다 젊은이였는데 Peak전에 하산하며 겸손하게 서서 “Have a Nice Hiking!”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마지막 350fts는 어렵지요. 그러나 당신들도 할 수 있어요.”라는 의미였겠지요.



왼쪽부터 박진국(의대 65), 조정시(공대 60) 부부, 김동근(공대 60), 김홍묵(문리대 60), 유재각(음대 73), 부인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십시오.



차효미 (음대 63)

/ 살며 생각하며 /

스크랩북 에필로그②

Scrapbook Epilogue

첫 아이는 부모가 열심히 사진도 찍고 생일 파티며 다른 명절에 정성을 많이 쏟는데 밀으로 내려갈수록 지쳤는지 현명해졌는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또 윗 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모아놓은 재료가 줄어들어서 Middle School 2년, High School 4년에 scrapbook 하나씩, 대학 4년과 결혼 할때까지 몇 년을 합쳐서 다른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중, 고등, 대학교에서는 학교 공부나 숙제한 paper들이 전혀 없고 handmade card도 끝입니다. 사진 몇 장과 성적표, 학교 신문이나 다른 공지 사항, 그리고 상장과 졸업장이 전부이고 특히 대학교때는 매 학기 보내오는 tuition bill, 그리고 financial aid package가 산더미더군요. 처음 이 project를 시작할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결혼 할때까지로 끝을 내려고 작성 했었습니다. 결혼하면 부모 곁을 떠나게 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제가 할수 없는 영역이 됩니다. 커다란 container를 세개 준비하여 scrapbook에 들어갈수 없는 것들은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 medal, trophy, yearbook 같은것 들이고 또 아이들이 어려서 만들어 준 버릴수 없는 기념품들입니다. 손주들의 사진과 계속해서 오는 카드와 편지들도 모두 그 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가져 가겠지요.

2020년은 여러가지로 특별한 한해였습니다. COVID-19 pandemic으로 거의 일년 가까이 청소부를 비롯하여 아이들과 손녀들이 아무도 오지 못했고 저희도 집에만 있었지요. 집안에 물건들을 정리없이 늘어놓고 작업을 해도 치울 필요가 없었고, 보통때보다 cook을 많이 하는것 빼고는, 특별히 다른 할일도 없었기에 거의 매일같이 공백 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한해가 다 지나면서 세 아이 모두 결혼 할때까지 정리하고 나니까 큰 애는 11권, 다른 두 아이는 9권씩으로 끝이 납니다. 산더미 같은 "pass" 하지 못하고 처진 사진과 다른 물건들은 언제 용기를 내어 치워야 하겠지요.

마지막 page에 엄마가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하나씩 썼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 일을 12년 가까이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입니다. 아이들이 고맙고 저희 부부에게 사는 보람과 즐거움을 준 대신에 부모로서 더 잘해주지 못한 후회와 안타까움이 많았어요. 한국식으로 자식을 키우려는 저희와 미국에서 나서 자라는 아이들 사이에 갈

등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loan이 많아서 풍족하게 대해 주지 못한일,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job을 얻은 후에도 제가 일하느라 자주 찾아보지 못한일 등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후에 음악 선생을 하다가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New York에서 한 학기를 다니고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오빠 친구와 결혼하여 Baltimore

computer가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 데 말입니다. 그냥 처음에 한 두과목만 택해서 할수 있는지 어떤지 보기로 했어요. 친척도 아는 사람도 전혀 없으니 남편은 일하러 가고 큰 애는 2학년, 둘째는 Kindergarten에 간 사이에 작은 아이는 학교에 데리고가서 유치원에 맡기고 class에 들어 갔습니다. 영어도 모자라고 기본 실력도 없으니 강의를 녹음하여 아이들 재우고나서 밤을 새우다 시피 했지요. "하면 좋고 못하면 할수없고"

고 camping 이 가장 돈이 적게드는 vacation 이라서 멀지않은 park와 beach 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면 팔짱 끼면서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 시절들을 보냈는데 왜 그러느냐 합니다. 세 아이가 다 딸이고 크게 나이차이도 없었으니 서로 친구가 되었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job을 얻었을때 너무나 무서워서 매일 걱정을 했더니 9살짜리가 작은 통 안에 facial tissue를 차곡차곡 접어서 집어넣고 자기 사진을 곁에 딱 붙이고 편지를 써 줬어요. 회사에서 힘 들어서 눈물이 나면 이걸로 닦고 자기 얼굴을 보면서 딸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억하고 기운을 내라고요. 7살짜리는 손바닥 만한 방식을 만들어서 자기와 내 이름을 중덕중덕 수를 놓고 힘들때마다 여기 누워서 잠깐 자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서랍속에 넣고 가끔 들여다보면서 미소를 짓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 애들에게 줄 container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스크랩북에 있는 세딸들의 어릴때 모습.

에서 살게 되었지요. 남편이 받는 장학금으로 살면서 아이 둘까지 낳아서 겨우 지탱했지만 학위를 받으면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나줄 알고 아무런 불평도 없었습니다. 막상 졸업을 하고 나자 학생 visa를 갖고 있으니 한국으로 돌아 가던지 여기서 어떻게 job을 얻어야 했었지요. 어떤 회사에서 영주권을 sponsor 해 준다하여 아주 적은 월급으로 몇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또 애기를 낳아 이제 다섯 식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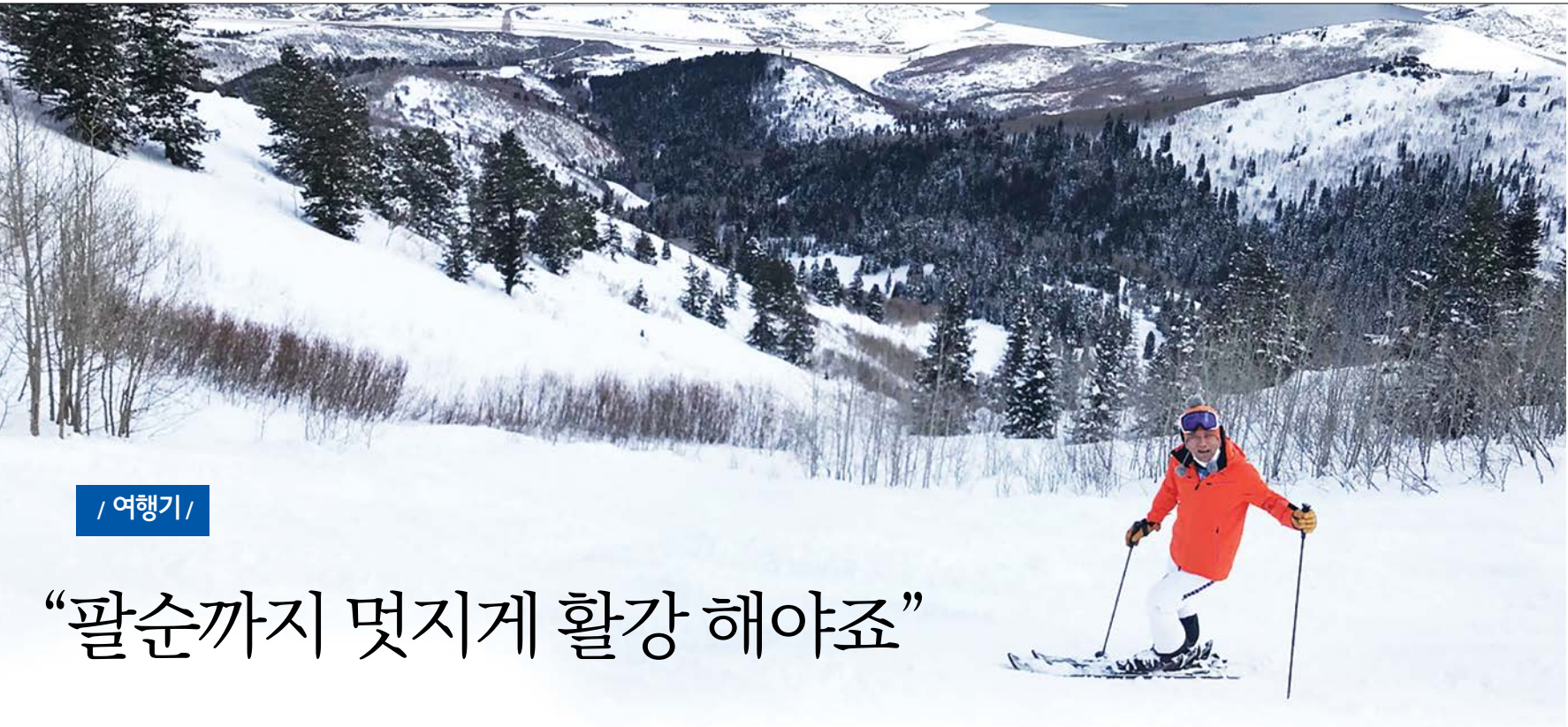
저는 미국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대학도 못 보낼테니 큰일이라고 걱정했어요. 19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반해도 지금과는 천양지 차이이라 남편은 data tech라는 분아가 job을 쉽게 구할수 있을거라고 제가 공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저는

가 아니고 죽기 아니면 살기 라고나 할까요. 다행히 한국에서의 대학 성적이 좋아서 몇가지 교양 과목들은 편입생 처럼 인정을 받고나서도 Computer Science로 bachelor를 받는데 고백 4년이 걸렸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동안 아이들은 자랐고 드디어 영주권, 시민권을 받게되어 Government에 들어 갔습니다. 일 하는데 자신도 없고 쫓겨나면 큰일이다 심어서 남들보다 몇배나 열심히 배우고 시간을 훨씬 더 써서 매달린 덕분에 큰 탈없이 22년을 일할수 있었지요. 주말에도 일하고 밤 낮 없이 바쁘니까 남편이 세 아이 따라다니며 PTA meeting, 학예회와 각종 모임, 한글학교와 교회, 생일 파티와 lesson 등 혼자 고생이 많았습니다. 누가 나중에 말하더라 job을 쉽게 구할수 있을거라고 했어요. 시간도 돈도 없으니 다른건 못해주

Scrapbook을 빨리 끝내지 못해서 받는 stress 때문에 잔소리가 많고 쉽게 moody 해지는 마누라에게 짜증이 날 법도 하건만 항상 격려해준 남편이 감사합니다. 무슨 재료가 모자란다면 하면 버락 같이 사다주고 책을 한 권씩 끝 낼때마다 제대로 맞지 않는 엉터리 부품을 가지고 골치를 썩이면서도 장정을 깨끗이 도맡아 해 주었어요. 다 끝내고 나니 남편은 감회와 더불어 아이들 주어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digital file을 만들어 보관하자고 합니다. 이제는 힘이 다 빠져서 그럴 기운도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해 준것이 제가 헛 수고는 안했다는 뜻으로 고맙게 받아들어 집니다.

우리 딸들이 이 책들을 제가 기대한 만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주들이 언젠가는 볼것이고 자기 엄마가 자라온 날들을 좀 더 알수있게 되기를 바라지요. 또 남편들도 아내가 결혼 할때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더욱 사랑과 이해심이 생길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한 구석에 있다가 없어진다 해도 제가 오랜 세월 이 일을 하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고 깊이 감사하며 정신적으로 아이들과 한층 더 가까워질수 있었다는것 만으로도 제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끝)



/ 여행기 /

“팔순까지 멋지게 활강 해야죠”



하기환(공대 66)

찾아다니면서 타는 것은 위험도 하고 힘이 많이든다. 처음부터 배운 것이 Groom 된 곳은 재미가 없어 그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서 앞으로 80까지 계속 내 방식으로 스키를 타려고 마음을 먹고있다. 그 동안 두번의 사고가 나서 한번은 무릎뼈가 조금 깨져서 내려 안왔고 또 한번은 발목뼈가 여러 곳에 금이가고 뿌러져서 Plate 와 Screw로 고정시켜서 지금은 뼈가 튼튼해 진 것 같다. 스키장으로 유명한 콜로라도, 유타, 캐나다에 일주일씩 Timeshare 콘도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4번째 주는 콜로라도 스키장을 (베일, 비버클리크, 아스펜, 스노메스 스템보트 키스톤) 다니고 8번째 주는 유타 스키장(팍 시티, 케년, 디어밸리, 알타, 스노버드, 브라이튼, 솔리튜트) 방문하고 12째주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가까운 (휘슬러 블랙콧) 스키장을 일주일씩 다닌다. 스키장도 골프장과 갈아서 같은 곳에서만 타면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해서 항상 옮겨가면서 탄다. Austria, Swiss, France and Italy 알프스산에 정말 많은 스키장이여 스키어들은 꼭 한번 가 볼만한 곳이다. 문제는 그 알프스산엔 워낙 지역이 크고 방대해서 Mogul이 생기기 않고 Tree Line 이 밑에만 있어 Mogul과 Tree Ski를 탈 Slope 가 없어서 스키타는 맛은 없고 단지 경치, 음식, 쇼핑 등을 즐기고 온다.

이번 유타스키 여행은 2021년2월 19일 처음으로 자동차로 여행을 했다. 19일 아침 7시에 떠나서 유타 Park City 스키장까지 10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Marriott 콘도에 도착했다. 일주일간 사용할수있는 콘도에서 주변의 스키장들 여러곳을 섭렵하려고 했다. LA에서 재미스키협회 및 동우회 30여명이 같이 조인해서 스키를 타기로했다. 이 회원들은 Salt Lake에 있는 호텔을 사용하고 아침에 스키장으로 만나기로 했다. 첫날 20일은 Deer Valley라고 유타주에서 최

고급 스키장으로 유명하고 오직 Ski만 탈수 있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Board는 입장불가이다. 산은 크지 않고 특히 Lift가 길지 않고 짧게 설계되어서 편리하게 되어있다. 둘째날 21일은 Salt Lake City에서 가까운 Alta 와 Snowbird 를 타기로 해서 40마일 정도 Park City에서 운전하고 갔다.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고 줄이 길어서 상당히 기다리고 탔다. 유타스키장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고 수년전에 Snowbird 라는 옛 스키장과 연결시켜서 한인들이 즐겨 찾는 California에 있는 맘모스 스키장보다 훨씬 큰 대형스키장이 되었다. 22일은 Park City에서 스키를 즐겼는데 이 스키장은 수년전에 옆에 Canyon스키장과 연결시켜서 이전 5,000 Acre 정도가 넘는 대형 스키장이 되어 하루에 전 지역을 Cover 하기엔 힘이든다. 쉬지않고 다녀도 하루엔 역부족이라 Canyon쪽 위주로 많이 다녔고 Park City는 마지막날 타기로 했다. 23일은 유타스키장에서 작은 Size 스키장인 브라이튼과 솔리튜트 스키장을 오전과 오후에 다 Cover 하기로 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였다. 작은 스키장이라 오래전에 가보고 다시 찾아 본 곳인데 놀랍게도 솔리튜트 스키장이 정말 내 Style 스키와 딱 맞는곳이다. 주로 Mogul 발이 전 지역에 걸쳐서 생겼고 나무도 많이 있고 Mogul도 적당한 Size로만 들어져서 너무 재미있고 Enjoy 했다. 다음부터는 매년 꼭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남은 2일간은 지난번에 제대로 못 Cover 한 Snowbird 와 Park City 스키장 위주로 구석구석 다니면서 빠지지 않고 전 지역을 다 Cover 했다. 나는 아침일찍 시작하지 않고 10시 정도에 시작해서 4시에 끝내고 중간에 점심겸 1시간 쉬는 것으로 한다. 아침엔 Slope이 어려서 Speed만 타고 위험하



고 출고 해서 좀 눈이 녹기 시작할때 시작한 다. 금요일 26일 콘도를 Check Out 하고 자동차로 5시간 이상 달려서 Idaho 주에 있는 명문스키장 Sun Valley 에 도착했다. 숙소는 2 Bedroom 콘도를 빌리고 두 부부만 따로 여행을 시작한것이다. Sun Valley는 여름에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세계경제에 관한 Seminar와 Conference를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워렌버핏, 빌게이츠 등이 주관하고 한국 삼성 이재용회장도 가끔 초대되는 행사이다. 마을이 아주 아름답고 스키장 시설도 최고급으로 해 놓았는데 보통 설질이 안 좋아서 스키어들에게 인기가 별로이다. 혹시나 해서 장거리 운전하고 다시 방문했는데 역시나 icy 하고 눈이 엉망이라 하루만 타고 이튿날은 아침부터 몬타나주에 있는 Big Sky 스키장으로 떠났다. Slope Map을 보니 보통 스키장이 어려워도 Two Black Diamond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Three Black Diamond가 여러곳에 많이 있다. 2일을 타기로 하고 3박을 하는데 첫날은 Three Black Diamond 근처에 가보니 정말 스키 Slope 이 장난이 아니고 Slope이 30도가 넘고 40도가 되는 곳도 있다. 산악등반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40도 경사가 사람이 서 있지 못하고 절벽에서 추락하는 기본으로 스키를 타야 될 정도로 험한 경사이다. 여기 올라가는 Tram이 겨우 5명 정도 타는 아주 소형인데 양쪽끝에 하나씩 만들어 한시간 이상 기다려도 탈 수가 없게 되어서 여행객에겐 도저히 시간상 안 될것 같아서 포기했다. 그 옆에 Chair Lift로 Serve 하는 Three Black Diamond Slope이 있어 평 아니면 닭이라고 이것을 몇번 Try 해 보았다. Slope길이는 짧지만 급경사라서 위에서 한 번 미끄러지면 중간에 도저히 Stop이 안되



는 Slope이다. 이럴땐 무조건 Slope에 몸을 던져서 Turn을 하고 중간에 서지 말고 끝까지 편한 경사까지 내려와서 위를 쳐다보던지 해아지 중간에 Stop하고 겁을 먹으면 더 이상 남은 Slope 내려오긴 심적으로 무서워서 얼어붙어 버릴경우가 있으니 시작하면 몸을 Slope 에 맡기고 몸을 밖으로 던지고 Slope을 Attack하는 기본으로 타면 스키가 알아서 Turn을 해준다. 겁이나서 엉망이 될 뒤로 빼고 Ski를 시작하면 결과는 앞, 뒤로도 못하고 몸이 얼어 붙어 정말 곤란한 지경이 된다. 2일간 큰 Big Sky를 구석구석 다 보고 눈도 아주 좋았고 정말 좋았다. 이 스키장과 바로 붙어있는 Yellowstone Club이란 미국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Private 스키장이 있다. 얼마 전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하고 유명한 미식축구선수 톰브레디도 멤버이고 멤버되는 조건은 그 스키장에 대궐같은 집을 소유해야만 Member 자격이 되고 그 안에 있는 식당 및 모든 휴게소의 음식은 무조건 공짜로 먹을 수 있다고 한다. 매년 내는 HOA가 십만불이 넘는다고 하니 상류사회 부자들이 스키장도 Private에 다닌다. 크기도 상당히 커서 Big Sky 에 반은 되는것 같다. 당연히 Member Only 라 바로 Lift 타고 옆에 보어도 들어가진 못했다. Big Sky 스키장을 마지막으로 몬타나주에서 엘에이 오는 거리가 1,000 마일이 넘는다. 옛날 젊었을 때는 쉬지않고 하루에 오겠지만 무리하고 싶지 않아 중간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 유타주의 Filmore 라는 동네 모텔에서 일박하고 엘에이로 내려왔다. 집에 도착하니 자그마치 2,800 마일을 차로 운전하고 다녔으니 당분간 이런 어려운 여행은 못 할것 같다. 그래도 일주일 쉬고 다시 Mammoth 스키장으로 2박 3일 떠나기로 했다.



박준창 (인문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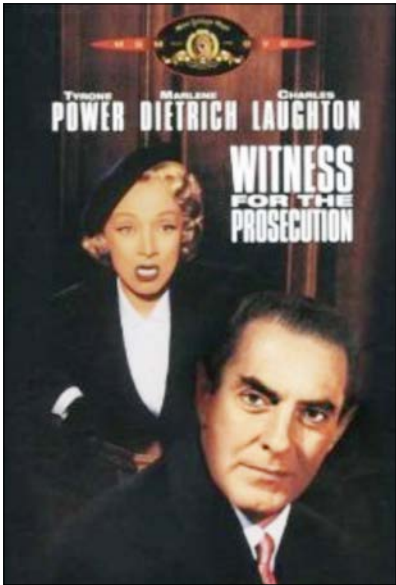


박변의 내멋대로 영화보기

/명작 다시보기/

Witness for the Prosecution

영국 변호사 윌프리드 로바츠 경은 자신의 말대로 성질도 나쁘고, 지기 싫어하는, 심장 마비를 일으킨 늙은 변호사. 담배를 못 피게 하고, 술을 못 마시게 하고, 낯잠을 자게 하는 등 철저히 그의 건강을 챙기는 간호사에게 감사는 커녕 그녀를 죽이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연습까지 한다. 하지만 실력 하나 만큼은 알아 주는 경력 37년의 유명한 변호사. 그는 이제 의사로부터 그를 흥분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형사 사건은 말으면 안된다는 경고를 받은 상태.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오는 첫날, 살인 사건의 변호를 맡게 된다.



내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겠는가? 주인공 변호사가 불의 아내에게 가르쳐 준대로, 법으로든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해 불리한 증언을 하라고 요구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불은 물에 빠진 사람이 면도날이라도 움켜잡는 기분으로 ("like a drowning man clutching at a razor blade") 처절하게 아내만 믿고 매달린다. 독일 출신 여자인 그의 아내가 변

호사를 만나는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과는 달리, 아내는 별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위해 기꺼이 증언하겠으며, 필요하다면 눈물도 흘릴 거라고 약속한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검찰이 아내를 증인으로 증언대에 올리는 것이 아닌가?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고 그러니 부부에게만 주어지는 보호 특권이 없는 것이었다. 이 점을 간파한 검찰이 사실혼의 아내를 증인으로 내세운 것이다. 그리고 아내는 지난변과는 정반대의 증언을 한다. 남편은 10시가 넘어서 왔고,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자신이 프랜치 부인을 죽였다고 고백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한다. 그에게 사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온다.

그런데 위기에 빠진 변호사에게 어떤 여자가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재판 흐름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를 돈을 받고 팔겠다는 것. 변호사는 그 증거를 입수한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녀가 맥스라는 연인에게 쓴 편지들. 그녀의 남편이 자신의 증언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으니 이제 자신들은 걱정없이 서로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이로써 이번에는 변호사에 의해 다시 한번 증언대에 선 그녀. 그녀는 지난변의 위증을 실토하

게 되고 불에게는 무죄가 선고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이상하다. 주인공 변호사는 뭔가 찜찜한 점이 많았는데 ("It's a little too neat, too tidy") 비로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결말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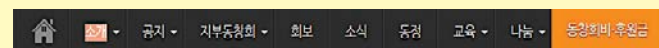
아가타 트리스티 원작 검찰측 증인 (The Witness for the Prosecution) 을 1957년에 영화화 한 것. 영화 제목에는 정관사 "The"가 빠졌다. 필자는 소설을 어릴때 읽고 너무나 재미있었다고 느낀 것 이외 내용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주인공 변호사 역은 찰스 로턴 (Charles Laughton)이 맡았는데 심술궂고 과묵스런 역을 아주 잘 해 낸다. 여 주인공 역은, 바람도 많이 피웠고, 당대 못남성들을 사로 잡았다고 하는 독일 출신 배우 마를린 디트리히 (Marlene Dietrich)가 연기했는데 요즘 너무 예쁜 배우들이 많아 그런지 그닥 예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때 당시 56세 정도되었으니 대단히 놀라운 젊음을 유지하곤 있지만).

이 영화에서, 여자들을 철저히 이용해 먹는 연기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은 타이론 파워 (Tyron Power)는 이 영화 출연을 마지막으로 44세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동창회비 후원금 납부, 온라인으로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u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1.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에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 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십시오.
2. 수표의 수취인(payable to)은 SNUAA-USA입니다.
3.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u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영화읽기 /

영화 <봄날은 간다>를 세 번 보다



정홍택(상대 61)

맨 처음 볼 때는 한 10년 전이었는데 그저 덤덤했다. 또 하나의 '멜로 드라마'로구나. 그리고 잊었다. 얼마전 영화 동호인 한 분이 다시 추천해 주었다. 연속극 대장군에 나왔던 이영애의 연기를 눈여겨 보라는 조언도 잊지 않으면서. '아니, 여주인공이 대장군의 그 이영애야? 아무리 명배우라 해도 그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을까? 호기심에 다시 보게 되었다. 났을 잃을 정도로 남녀 두 주인공의 연기가 뛰어났고, 영화의 분위기는 환상적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받쳐주었다. 끝나고 자막이 오를 때에도 내 눈의 잔상은 아직도 두 사람을 쫓고 있었다. 내친 김에 한번 더 보았다.

영화이기 보다는 눈으로 감상하는 시(詩)였고 수채화(水彩畵)이기도 했다. 수채화를 글로 옮길 수는 없고, 시적 감동을 수필과 시(詩)로 다시 풀어보고 싶었다.

봄은 어찌 오는가?

사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이락을 피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엘리엇)

봄은 어찌 가는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날은 간다

(백설희 노래)

사랑은 어찌 오는가?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듯이 온다.

사랑은 어찌 가는가?

추억과 욕망의 과거를 땅에 묻어 황무지로 버려야 간다.

이 영화는 사랑의 오고 감을 자연 속의 소리(Sound)로 바꾸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한다.

사랑이라고 뭐 자연 현상과 다르게 있을까? 순서만이 바뀌어 오고 갈 뿐이다. 그러나 첫 사랑의 문턱에 선 젊은이들은, '사랑은 영원

하다'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영화 <봄날은 간다>는 그에 대한 대답이다. '사랑도 필 때가 있고 또 질 때가 있다'고.

사랑이 싹틀 때는 봄날의 야지랑이 같다. 처음 공적(公的)인 일로 만난 상우와 은수는 자연의 노래를 녹음하려고 대나무 숲에 들어간다.바람 한 점 없는데도 갈수록 잎들의 소곤소곤 귓속말이 정겹다. 곧 이어 심술 바람이 들이 닥치니, 잎과 대나무 몸통들이 일시에 '쌌-쌌르르' 부끄럼 없이 몸을 비비며 소리친다. 사랑하는 남녀 합일의 절정의 소리를 닮았다. 여기에 햇빛이 담담히 스며들어 꿈같은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 두 사

는 정경을 녹음하며 마음을 녹인다. 녹으면 끓고 싶은 법. 일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아파트 앞에 은수를 데려다 주고 돌아 가려는 상우에게 무심한 듯, '특' 던지는 한 마디, '라면 먹을까요?'. 오페라 '칼멘'에서 칼멘이 순진한 청년 장교 호세의 발치에 '특' 던지는 새빨간 장미가 생각난다.

옛날에 정사각형과 동그라미가 사랑을 했더라. 반듯한 정사각형은 동그라미를 자기 속에 꼭 품고 싶어했지. 동그라미는 정사각형 안의 보금자리가 숨이 막힐 것 같았어. 그래서 혼자 중얼거렸지. '난, 한없이 굴러가고 싶어'. 88 올림픽 개막식에서 굴렁쇠는



사랑은 변하지 않아
단지 사람의 마음이 변했을 뿐이지

- 영화 <봄날은 간다>

려가는 고모, 모두가 자기를 희생하고 바르게 살아가려는 작은 사각형의 식구들이다. 어느날 은수는 상우에게 말한다.

"우리 헤어지자"
"그러지 마. 나, 잘할게"
"헤어져"
"너, 사랑하니?"
"헤어지자!"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헤어지자."

사랑이 끝날 때는 이렇게 막무가내가 되는 가보다. 이에 상우는 은수의 새로 뽑은 연초록 승용차의 문짝을 자기 차 열쇠로 길게 긁는다. "찌지자—직". 사랑이 떨어져 가는 잔인한 소리!
"빠스와 여자는 떠나면 잡는게 아니란다." 이 한마디를 상우에게 던져준 할머니마저도 그 긴 기다림 끝에 할아버지 곁으로 가셨다. 연분홍 치마 저고리로 곱게 단장하고서. 할머니를 묘지에 묻고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상우는 어쩔수 없이 은수가 그림다.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같까

그래도

다시 한번 더 (김소월)

마음이 전해졌는가, 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만나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커다란 창가의 다방에서 두 사람은 다시 대면했고, 벚꽃 거리를 연인처럼 걷는다.
"우리 같이 있을까?" 넌지시 마음을 떠보는 은수. 19세에 시양 격언에 '첫사랑은 홍역과 같아서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다고 했다. 첫사랑의 아픔은 인생의 통과리레이다. 어른이 되어가는 첫번째 관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역을 두 번 앓는 사람은 없다. 상우는 은수의 선물을 아무 말없이 돌려준다. 두 연인이 헤어지는 이 장면은 영화의 백미 중의 백미이다. '로마의 휴일'의 끝 장면도 이에는 미치지 못한다.
먼 훗날 상우는 혼자 미소지으며 은수를 기억하리라.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옛날은 남는 것. (박인환)

www.snu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3백만불 모금 캠페인

후원에 주신 동문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내에서 최초의 면세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자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총 모금액 TOTAL \$662,918
<모교발전기금 포함>

종신이사 (\$3,000) 명단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 이사 \$10,000 이상 실버 이사 \$6,000 이상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권기홍 (의대 60) 광옥길 (문리 59)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성호 (법대 64)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박원준 (공대 53)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창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박창규 (약대 59) 조한원 (의대 57) 김기형 (상대 75)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민병곤 (공대 65)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승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택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추재욱 (의대 57) 고애자 (음대 57) 강 애드워드 (사대 60) 이재광 (상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김중률 (사대 51) 윤종숙 (약대 66) 김해암 (의대 52) **한글**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김용구 (공대 66)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이의인 (공대 68)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김중률 (사대 51)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조지아** 김용건 (문리 4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네바다** 정상진 (상대 59) (G) **중부텍사스**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 55)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신의식 (공대 53) 김영우 (공대 55) 신성식 (공대 56)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종신 이사 구분]** (D)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P)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G) 골드 이사 \$10,000 이상 (S) 실버 이사 \$5,000 이상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권기홍 (의대 60) 광옥길 (문리 59)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성호 (법대 64)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박원준 (공대 53)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창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 72) 정재훈 (공대 64)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종환 (사대 54) 하기환 (공대 66) 한귀희 (미대 68)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박창규 (약대 59) 조한원 (의대 57) 김기형 (상대 75)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민병곤 (공대 65)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승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택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추재욱 (의대 57) 고애자 (음대 57) 강 애드워드 (사대 60) 이재광 (상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김중률 (사대 51) 윤종숙 (약대 66) 김해암 (의대 52) **한글**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김용구 (공대 66)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이의인 (공대 68)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김중률 (사대 51)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조지아** 김용건 (문리 48)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네바다** 정상진 (상대 59) (G) **중부텍사스**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 55) 서중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 77) 이만택 (의대 52) 주기목 (수의 68) 신의식 (공대 53) 김영우 (공대 55) 신성식 (공대 56)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일반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동창회의 재정자립을 위해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제 혜택 및 기부안내

- 1)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1994년 12 델라웨어주에 비영리 법인 (IRC 501(c)(3))으로 등록되었으며
- 2) 미 연방국세청(IRS)로부터 미주 각지역 동창회를 대표하는 단체 면세승인 (Group Tax Exempt) 번호 3784를 취득하여 여러분의 후원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또한 연방국세청법(IRC 2055, 2016 and 2522)에 따라 각종자산에 대한 유산 (Bequests, Legacies) 유증(Divises), 양도(Trensfers) 및 기증(Gifts)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 4) 미주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3백만불 모금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동창회로 문의해주시시오. 세금공제 혜택을 위한 법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SNUAA-USA / E. Peter Shin, ESQ.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T 718-463-3131 E-mail: news@snuuaa.org

www.snuuaa.org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130명)

(P) 플래티넘 이사 주중광 (약대 60)	박윤수 (문리 48) 박종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인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창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S)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박창규 (약대 59) 정상진 (상대 59) 허지영 (문리 66) 이용락 (공대 48)	강신용 (사대 73) 광옥길 (문리 59) 권기홍 (의대 60)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성호 (법대 64) 김재영 (농대 62) 김태환 (의대 58)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한귀희 (미대 68) (S)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광옥길 (문리 59) 권기홍 (의대 60)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 63) 김성호 (법대 64) 김재영 (농대 62) 김태환 (의대 58)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원준 (공대 53)	한귀희 (미대 68) (S)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민병곤 (공대 65) 손석보 (공대 68) 전혜경 (문리 67)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승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택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추재욱 (의대 57) 고애자 (음대 57) 강 애드워드 (사대 60) 이재광 (상대 61) 최영태 (문리 67) 최수용 (상대 55) 김중률 (사대 51) 윤종숙 (약대 66) 김해암 (의대 52)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워싱턴 DC	강연식 (사대 58) 권기현 (사대 53) 최수용 (상대 55) 김중률 (사대 51)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워싱턴 주	이희백 (의대 55)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정 태 (의대 57)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조지아	김용건 (문리 48)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루이지애나	강영빈 (문리 58) (S)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플로리다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김기형 (상대 75)	김승호 (공대 71) 석창호 (의대 66) 한태진 (의대 58) 김한중 (의대 56)	오인환 (문리 63) 최지원 (의대 61) 공순옥 (간호 66)	변우진 (인문 81) 조형준 (문리 62) 황효숙 (사대 65)	김중권 (의대 63)

3월 후원자

*종신이사	한태진 (의대 58)	김영우 (공대 55)	신성식 (공대 56)	김한중 (의대 56)	김기형 (상대 75)	이용락 (공대 48)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공순옥 (간호 66)	이의인 (공대 68)	김용건 (문리 48)	

고 한경수 (문리 57)	김권식 (공대 61)	이준행 (공대 48)	김경숙 (간호 68)	박종수 (수의대 58)	한인섭 (약대 63)	최형무 (법대 69)
이상대 (농대 80)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신혜령 (간호 72)	안승호 (공대 71)	임종식 (의대 51)	고애자 (음대 57)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박태호 (치대 66)	염동해 (농대 74)	고 유태중 (공대 50)	고 김정영 (약대 59)	권기상 (경영 72)

\$500이상 후원자

업소로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2차 회기: 2019. 7. 1 ~ 2021. 6. 30)

전희장단 이월금 (6/23) 30,000 (10/31) 27,365.02	차민영 (의대 76) 최무식 (약대 66) C THOMAS PARK PEDIATRICS 윤의규 (상대 82) 김해암 (의대 52)	240 240 240 240 240	웹사이트 광고비 (2020.7.1 ~ 2021.6.30) 워싱턴디씨 뉴잉글랜드 조지아 미네소타 오레곤 커네티컷 플로리다 알래스카	2000 1,000 800 600 300 300 300 200	최재귀 (미대 63) 심상은 (상대 54)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김영자 (간호 53) 권철수 (의대 70) 오석일 (의대 64) 권기상 (경영 72) 윤인숙 (간호 63) 구철희 (의대 78)	300 200 200 200 100 100 100 100 50 25	문성인 (공대 88) 한성수 (의대 54) 이규만 (문리 61)	100 50 25	노명호 (공대 61) 박필영 (농대 69) 윤상래 (수의대 62) 지홍민 (수의대 61) 곽선섭 (공대 61)	500 500 500 300 300	노명호 (공대 61) 박필영 (농대 69) 윤상래 (수의대 62) 지홍민 (수의대 61) 곽선섭 (공대 61)	500 500 500 300 300	
업소로 광고 후원비 실로암병원 - 정균희 김일영 (의대 65) 남옥현 (경영 84) 정재훈 (공대 64) 강신용 (사대 73) 김원탁 (공대 65) 이경희 (인문 83) 정세근 (자연 82) 강호석 (상대 81) 박희진 (농대 78) 장 준 (인문 85) 이상대 (농대 80) 정균희 (의대 64) 백승원 (의대 73) 서동영 (사대 60) 석창호 (의대 66) 손재욱 (가정 77) 신동국 (수의 76) 엄달용 (공대 69) 유창호 (약대 74) 이경림 (상대 64) 이병준 (상대 55) 이준영 (치대 74) 이종도 (간호 69) 이창석 (의대 72) 김원철 (농대 70) 염동해 (농대 74) 김원탁 (공대 65) 이종도 (공대 66)	720 480 480 480 240 240 240 240 240 480 480 480 48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48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240	광고비 이승훈 (자연사) (12/18/20) 김권식 (EVS) (10/18/20) (3/9/21) 이병준 (Seah) (2/11/21) 키스프 로트 (1/8/20) (1/25/21) 서울언어연구원 미래에셋 (~10/2019) SEOUL MEDICAL GROUP (10/13/20) TIMOTHY HAAHS & ASS. 손재욱 한남채인 (10/05/20) 뉴밀레니엄뱅크 듀오 (10/24/19) (6/30/2020) (11/14/19) (12/11/19) (1/17/20) (2/13/20) (3/13/20) (3/9/21)	2,400 3,600 1,500 1,500 1,500 1,500 1,240 1,500 1,500 1,500 1,483 1,200 1,000 1,000 1,000 1,0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나눔 권기홍 (의대 60) 차수만 (약대 71) 이소희 (의대 61) 임창희 (공대 73) 김순자 (치대 57) 김정화 (음대 56) 박수영 (농대 53)	2,000 300/500 250 200 100 25 25	모교발전기금 남세현 (공대 67) 황효숙 (사대 65) 윤우용 (공대 63) 황효숙 (사대 65) 곽선섭 (공대 61) 박원준 (공대 53) 오인환 (문리 63) 박원준 (공대 53)	2,000 1,000 1,000 1,000 500 500 300 300	최재귀 (미대 63) 심상은 (상대 54)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 69) 김영자 (간호 53) 권철수 (의대 70) 오석일 (의대 64) 권기상 (경영 72) 윤인숙 (간호 63) 구철희 (의대 78)	300 200 200 200 100 100 100 100 50 25	문성인 (공대 88) 한성수 (의대 54) 이규만 (문리 61)	100 50 25	노명호 (공대 61) 박필영 (농대 69) 윤상래 (수의대 62) 지홍민 (수의대 61) 곽선섭 (공대 61)	500 500 500 300 300
특별후원금	신용남 서울 총동창회 김동희 (공대 66) 박필영 (농대 69) 송용길 (신문 69) 유성은 (의대 88) 유시영 (문리 68) 윤봉수 (간호 69) 한태진 (의대 58)	\$16,947.74 3,000 100 200 150 1,300 300 100 500	특별후원금	정재훈 (공대 64) 박종수 (수의대 58) 신용남 (농대 70)	2,000 1,000 1,000	서울 총동창회	3,000						
29차 평의회 후원금	정재훈 (공대 64) 박종수 (수의대 58) 신용남 (농대 70)	2,000 1,000 1,000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서울 총동창회	3,000								

박정국 (약대 63)	김우영 (상대 60)	이대연 (약대 65)	이강원 (공대 66)	배영섭 (의대 54)	전병택 (상대 65)	조진태 (문리 57)*
박영욱 (사범 55)*	김원순 (간호 64)	이명중 (공대 72)*	이기순 (간호 70)	신동화 (문리 55)	최용성 (의대 55)*	최휘기 (공대 71)*
박성수 (공대 52)	김찬주 (의대 54)*	이명중 (공대 72)	이금하 (문리 69)	송재현 (의대 46)	한국남 (공대 57)*	최용천 (의대 53)*
박정규 (간호 76)	김정희 (간호 69)*	이문봉 (미대 76)	이영민 (사대 74)*	서상현 (의대 65)	한영준 (사대 60)*	탁해수 (음대 67)
박종섭 (법대 53)	김종철 (사대 58)*	이상근 (경영 84)	이의민 (공대 68)*	안신호 (농대 61)		황명규 (공대 61)
박종영 (상대 52)	김종철 (사대 51)	이성구 (약대 56)*	장수인 (공대 76)	안은숙 (문리 55)	워싱턴주	
안 진 (음대 95)	김종현 (법대)*	이승일 (경영대학 66)	장수인 (공대 76)	안영학 (문리 57)	워싱턴주 DC	
안호섭 (문리 58)	김태현 (공대 68)*	이상철 (62)*	전신희 (문리 57)	안창현 (의대 55)	WASHINGTON	
양서영 (보건 68)	김학자 (간호 59)	이성근 (의대 60)	전선주 (간호 68)	연경자 (약대 65)	권영희 (약대 66)	
오형권	김한중 (의대 56)	이영일 (의과 60)	최선희 (문리 69)	오동환 (의대 65)	김배훈 (공대 72)	
온기철 (의대 65)	김희국 (약대 54)	이용대 (약대)*	홍성웅 (상대 58)	오봉환 (법대 53)	김성열 (의대 61)*	
유두영 (공대 55)	김해암 (의대 52)*	이유선 (사대 57)*		원인수 (간호 69)	김형록 (간호 63)*	
위정중 (의대 73)*	김현중 (공대 63)	이유선 (의대 59)		유기정 (간호 72)*	류성열 (공대 72)	
이강우 (문리 59)	김현중 (공대 60)	이진자 (간호 60)		유동환 (농대 68)	박진수 (의대 56)	
이성형 (공대 57)	금동용 (문리 58)	이정자 (간호 59)		윤경순 (사범 61)	변중해 (법대 58)*	
이승희 (간호)	남수채 (공대 66)	이종석 (상대 57)*		윤익삼 (치대 62)*	신재우 (사대 77)*	
이재섭 (공대 65)	류은혜 (미대 71)	이종현 (법대 51)		이경미 (미대 69)	안승철 (농대)*	
이정남 (공대 63)	문소자 (음대 60)*	이준우 (음대 65)		이동근 (공대 75)	윤석진 (문리 64)*	
이민영 (문리 57)*	민인기 (의대 67)	이태상 (문리 55)		이덕수 (문리 58)*	윤대근 (공대 53)*	
이재권 (법대 56)	민준기 (공대 59)	이태한 (의대 61)		이민우 (의대 61)	양용관 (수의대 62)	
이정순 (가정 71)	민병철 (약대 61)	이희만 (간호 70)		이승일 (의대 65)	이길순 (상대 57)*	
이진희 (간호 70)	박건이 (공대 60)	임충선 (미대 60)		이소희 (간호 68)	이순모 (공대 56)*	
이흥기 (공대 62)	박경숙 (간호 72)	임도혁 (공대 59)		이시영 (상대 46)	이원철 (공대 77)	
임승태 (의대 66)*	박희희 (의대 57)	윤신진 (의대 50)		이승환 (공대 66)	이희백 (의대 55)	
임정환 (음대 76)	박수원 (음대 69)	장태환 (의대 61)		이성길 (의대 65)	장현필 (공대 60)*	
손창순 (공대 69)	박수만 (의대 59)	전병삼 (약대 54)		이승희 (간호 68)	정영자 (의대 59)	
신규명 (공대 64)*	박순영 (법대 56)	전성진 (사대 54)		이성환 (공대 66)	김용택 (의대 53)	
심영준 (수의대 64)*	박승호 (간호 69)	정동성 (상대 58)		이영수 (문리 66)	김찬규 (공대 54)	
조태록 (사범 60)*	박영태 (상대 63)	정인용 (의대)		이홍남 (공대 56)*	김희주 (의대 62)	
전병현 (공대 54)	방준재 (의대 63)	조규영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남준일 (사대 69)	
전경남 (공대 52)	방준재 (의대 61)	조남진 (사범 59)		이홍남 (공대 56)*	노상문 (인문 82)	
전병현 (공대 54)*	배정희 (사대 54)	조대영 (공대 61)		이홍남 (공대 56)*	박은희 (미대 68)	
정유석 (의대 58)	변광복 (간호 72)	조종수 (공대 64)		이홍남 (공대 56)*	박인영 (의대 69)	
정윤철 (공대 77)	변건웅 (공대 65)	조득환 (의대 61)		이홍남 (공대 56)*	박일영 (문리 59)	
정순수 (사범 56)	변호준 (간호 63)	조명애 (간호 47)		이홍남 (공대 56)*	박용길 (약대 56)*	
정지선 (상대 58)	석창호 (의대 66)	조상혁 (공대)		이홍남 (공대 56)*	박흥우 (문리 61)	
정준일 (간호 67)	성종철 (의대 57)	조태환 (상대 56)*		이홍남 (공대 56)*	변만식 (사대 49)	
정재창 (치대 67)	성기호 (의대 57)	주의동 (의대 58)*		이홍남 (공대 56)*	백 순 (법대 58)	
주영욱 (사대 55)	손갑수 (약대 59)	진봉일 (공대 50)		이홍남 (공대 56)*	이종일 (의대 65)	
최경선 (농대 65)	손규성 (사범 61)*	차국만 (상대 56)		이홍남 (공대 56)*	이준우 (치대 58)	
최형욱 (공대 69)	송근숙 (간호 66)	차수만 (약대 71)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최형순 (사범 69)	송기인 (의대 60)	전병삼 (공대 70)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전동우 (공대 63)	송용길 (신문 69)	최수봉 (간호 6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탁은숙 (문리 54)*	송영우 (사대 64)	최수영 (상대 55)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한상봉 (수의 67)	송철성 (화공 48)	최형태 (문리 67)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황만익 (사대 59)	신두식 (의대 58)	최정웅 (사범 63)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홍경선 (문리 61)	신용남 (농대 70)	최한용 (농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홍병익 (공대 68)	신정자 (간호 62)	최형무 (법대 6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황기국 (공대 50)	신준희 (간호 56)	한영준 (의대 61)*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황동하 (의대 65)	안태홍 (상대 65)	한태진 (의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양거영 (의대 48)	함종균 (상대 6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양명자 (사대 63)*	허병림 (의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연봉원 (문리 61)	허선형 (의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연영재 (공대 74)	허정열 (사대 63)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오봉우 (의대 66)	허영자 (약대 63)*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오용환 (의대 68)	허용웅 (상대 63)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우관해 (음대 63)	현영수 (음대 61)*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우대식 (문리 57)	홍선정 (의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원인수 (문리 67)*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용하식	뉴잉글랜드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우상영 (상대 55)	MAR/NH/ME/VT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유숙현 (간호 61)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유은희 (간호 71)	고종성 (사대 75)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유재섭 (공대 65)	김광수 (자연 73)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유재홍 (공대 58)*	김만욱 (약대 5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유택상 (문리 54)	김영자 (미대 60)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육순재 (의대 63)*	김은한 (의대 60)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병남 (사대 62)	김선혁 (약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신원 (의대 50)	김재호 (상대 5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성수 (공대 71)	김정선 (문리 6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영섭 (의대 57)	김진우 (의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인숙 (간호 63)*	김정환 (공대 52)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종숙 (약대 66)*	김재호 (상대 5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 철 (문리 54)	김형범 (문리 57)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현남 (공대 64)*	박종진 (의대 5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희정 (문리 59)	박종중 (의대 5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강욱 (공대 70)*	박종중 (의대 5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강훈 (상대 60)	박정철 (의대 64)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경림 (상대 64)	박찬호 (의대 66)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경태 (공대 63)	송미자 (농대 62)*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국진 (사대 51)	서준교 (공대 74)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윤상재 (수의대 62)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강원 (공대 66)	배영섭 (의대 54)	전병택 (상대 65)	조진태 (문리 57)*
이기순 (간호 70)	신동화 (문리 55)	최용성 (의대 55)*	최휘기 (공대 71)*
이금하 (문리 69)	송재현 (의대 46)	한국남 (공대 57)*	최용천 (의대 53)*
이영민 (사대 74)*	서상현 (의대 65)	한영준 (사대 60)*	탁해수 (음대 67)
이의민 (공대 68)*	안신호 (농대 61)		황명규 (공대 61)
장수인 (공대 76)	안은숙 (문리 55)	워싱턴주	
장홍복 (공대 58)*	안영학 (문리 57)	워싱턴주 DC	
전신희 (문리 57)	안창현 (의대 55)	WASHINGTON	
전선주 (간호 68)	연경자 (약대 65)	권영희 (약대 66)	
최선희 (문리 69)	오동환 (의대 65)	김배훈 (공대 72)	
홍성웅 (상대 58)	오봉환 (법대 53)	김성열 (의대 61)*	
	원인수 (간호 69)	김형록 (간호 63)*	
	유기정 (간호 72)*	류성열 (공대 72)	
	유동환 (농대 68)	박진수 (의대 56)	
	윤경순 (사범 61)	변중해 (법대 58)*	
	윤익삼 (치대 62)*	신재우 (사대 77)*	
	이경미 (미대 69)	안승철 (농대)*	
	이동근 (공대 75)	윤석진 (문리 64)*	
	이덕수 (문리 58)*	윤대근 (공대 53)*	
	이민우 (의대 61)	양용관 (수의대 62)	
	이승일 (의대 65)	이길순 (상대 57)*	
	이소희 (간호 68)	이순모 (공대 56)*	
	이시영 (상대 46)	이원철 (공대 77)	
	이승환 (공대 66)	이희백 (의대 55)	
	이성길 (의대 65)	장현필 (공대 60)*	
	이승희 (간호 68)	정영자 (의대 59)	
	이성환 (공대 66)	김용택 (의대 53)	
	이영수 (문리 66)	김찬규 (공대 54)	
	이홍남 (공대 56)*	김희주 (의대 62)	
	이홍남 (공대 56)*	남준일 (사대 69)	
	이홍남 (공대 56)*	노상문 (인문 82)	
	이홍남 (공대 56)*	박은희 (미대 68)	
	이홍남 (공대 56)*	박인영 (의대 69)	
	이홍남 (공대 56)*	박일영 (문리 59)	
	이홍남 (공대 56)*	박용길 (약대 56)*	
	이홍남 (공대 56)*	박흥우 (문리 61)	
	이홍남 (공대 56)*	변만식 (사대 49)	
	이홍남 (공대 56)*	백 순 (법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종일 (의대 65)	
	이홍남 (공대 56)*	이준우 (치대 58)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이홍남 (공대 56)*	이광일 (의대 59)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카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haeahm@aol.com

박범렐 소아과
박범렐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스크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SNU Alumni Association USA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aa.org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 \$200 ☐ \$500 ☐ \$1,000 ☐ \$ _____			

 ☐ \$75 (2020. 7 ~ 2021. 6) ☐ \$150 (2020. 7 ~ 2022. 6) ☐ \$3,000 (종신이사회비) |

 ☐ \$240 (2020. 7 ~ 2021. 6) ☐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aa.org | ☐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 Charity Fund (나눔) \$ _____ ☐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 모교발전기금 \$ _____ |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a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역대회장	남가주 S.CA/NV	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Feb-Jan
		차기회장				
박윤수 (문) · 감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치)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l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중광 (약)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집행부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텍사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차재호 (농공학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용정식 (농화학 86)	610-952-3673	jyong@umn.edu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중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흥목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앨라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조지아 GA/AL/MS	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kros@gmail.com	
		차기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흥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택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박용해 (상대 83)	203-767-8187	yhptax@gmail.com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하들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지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캐나다 밴쿠버	회장	조석기 (상대 71)		skeycho@gmail.com	Jan-Dec
		부회장			skeycho@gmail.com	
회장: 김명승 (상), 강호석(상)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duouusa.net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since 1999 듀오USA

결혼해듀오

결혼이란,
길박을 나눠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15
SINCE 2006
ANNIVERSARY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 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74)



Red Wing, Minnesota, USA
Developer: IPS Solar
Engineering: EVS, Inc.

SOLAR DEVELOPMENT

태양광사업에 관심있으시나요?

- Commercial & Industrial Buildings 에 태양광 설치
- Green & Brown Fields 에 태양광 설치
- 태양광 사업에 투자
- 태양광분야의 전문가 모집 (전기, 기계, 토목, 구조 분야)



미국에서 앞서가고있는 태양광기업 (EVS, Inc) 에 연락주세요.



김권식대표(공대 61)
dkim@evs-eng.com
(612) 961-6878

www.evs-eng.com